

SNU
MAGAZINE
VOL.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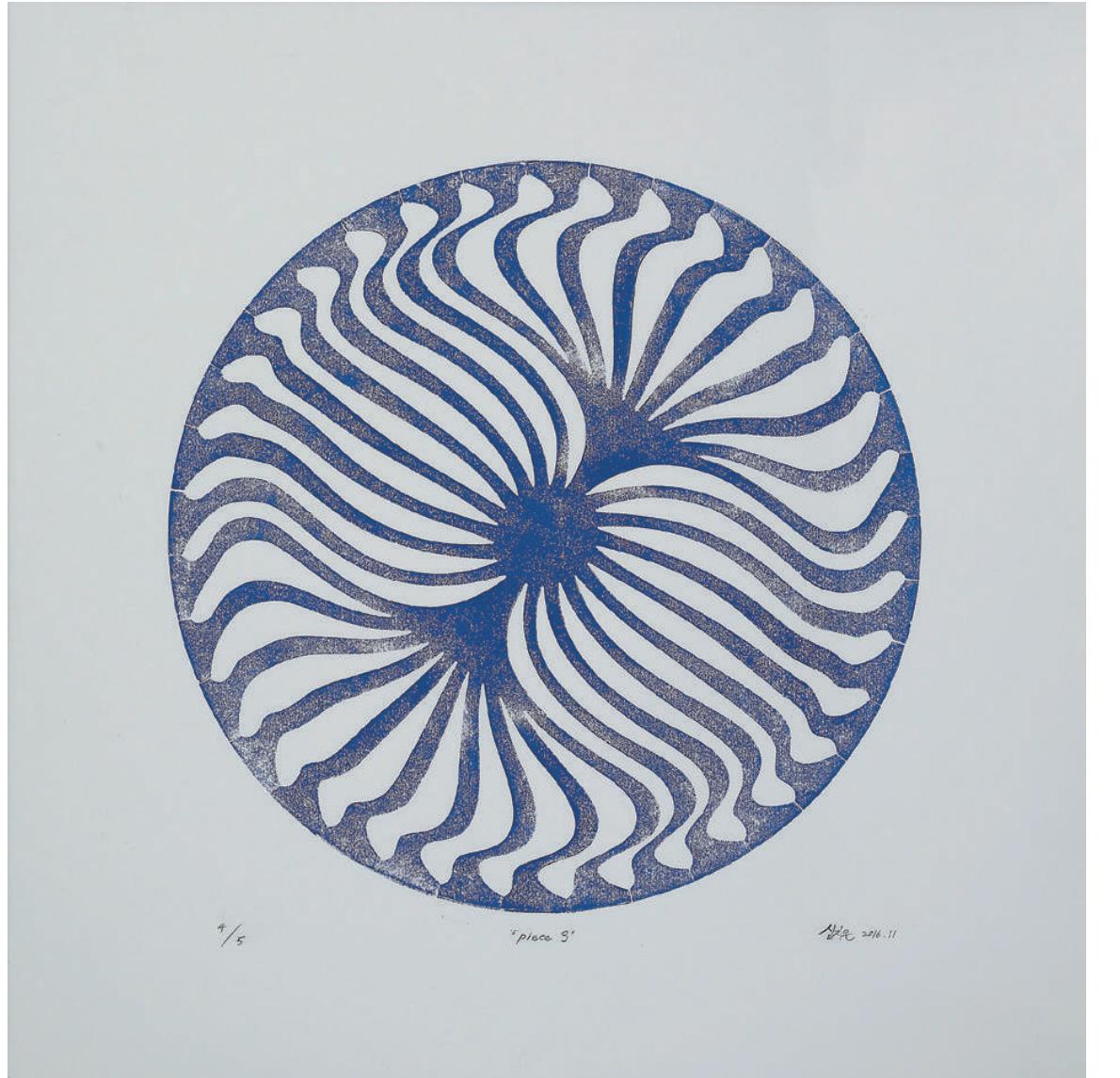
서울대 사람들

이건호 · 이수인 부부

컴퓨터공학과 ·
조소과 95학번
에누마 대표



세나
상눔
을으
로
잇다



<Piece 3>, 2018, 판화 기록물, 55×55cm, 심지은(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석사과정 졸업)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명을 지닌
지성의 전당입니다.

새롭게 얻은 배움을 날개삼아
세상을 한층 더 자유롭고
풍요한 삶의 터전으로 가꿀 수 있는
나눔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
이 시대가 부여한 대학의
책무일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지식과 배움을 나누는
서울대 사람들의 노력을
여기 담았습니다.

한 줄 생각 미리보기

04

커버스토리

“에누마의 고객, 제품,
제품을 만드는 방법에
이르는 모든 것이
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
방향이길 바랍니다.”

이수인·이건호 동문, 에누마 대표



24

연구노트

“박테리아의 생리를 이해하고 활동을
제어할 수 있다면 다양한 3차원 구조체를
제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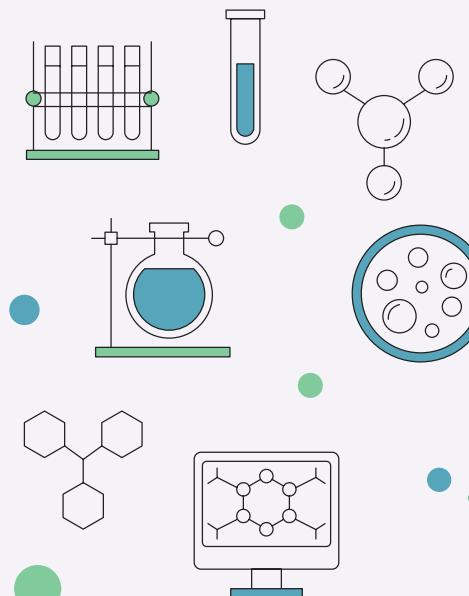
현진호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교수

08-15

인터뷰

“모든 서울대인에게는 학문적
수월성뿐만 아니라 공공적 리더십이
마땅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제용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이효민(의학과 97) 동문,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평생교육원 교직원
김현지(자유전공학부 18)·김한솔(치의학과 16) 학생



16-23

소식

자연대학교 공개 강연, 글로벌사회공헌단 활동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공현 소식**에서 알아봅니다.
'SNU 국가전략위원회'와 'AI 연구원' 등 지금 서울대학교의
주요한 정책 소식과 새로운 형식의 교양 과목 '창의와 도전'
수업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2019 교육상 및 학술연구상
수상자에게도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30

기부와나

“돌아보면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하여
이룬 것을 조국과
모교의 발전에 보태고
싶습니다.”

주중광(약학 60) ·
허지영(화학 66) 동문 부부



32

마음을 잊는 이야기

“서울대학교의 일원이 되었을 때, 합격한 것에
기뻤고, 부모님께서 기뻐하셔서 기뻤고,
서울대학교가 장학금이 나오는 학교여서
기뻤습니다.”

발전기금 장학금 수혜자 에세이

세상의 교육을
바꾼다는 에누마의
목표가 또 한 발
가까워졌다.
난민촌에서든
아프리카에서든,
장애가 있든
이중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누구에게나
태블릿이 주어지면
에누마의 게임
기반 자율 학습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초 수준의 읽고
쓰고 셉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2600

2600
9th St



enuma

에누마 대표

이수인 .
조소과 95
이건호 .
컴퓨터공학과 95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5년의 대장정,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거운 에듀테크 기업 에누마(enuma)가 지난해 엘론 머스크가 후원한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에서 공동 우승 했다. 세계 최대 비영리 벤처 재단 엑스프라이즈(XPRIZE)는 2014년 ‘전 세계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문제를 냈고, 파이널리스트 5팀이 아프리카에서 필드 테스트 후 에누마의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된 것이다. 그들의 ‘킷킷스쿨’이 세계 2억5천만 명 문맹 아이들을 도울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이 입증된 셈이다.

엑스프라이즈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제품 개발과 보급, 필드 테스트까지 정말 긴 시간을 거쳤네요.

5년간 모든 것을 걸고 진행한 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당연히 좋지만, 저희가 그동안 믿어온 ‘아이들이 교사를 만날 수 없는 환경에서 태블릿만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신념을 증명한 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교사가 없는 환경, 혹은 학생의 수준과 교사의 수준이 맞지 않는 환경에서도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유네스코가 디자인하고 엄격하게 통제한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으니까요.

창립 2년 차 스타트업이 장기간 대회에 참여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듣 생각은 “우리가 나가야 하는 대회로구나!”였지요. 어른들의 도움이 없이도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자는 저희의 개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주제였고, 유네스코가 진행하는 대규모 필드 테스트를 통해 객관적으로 제품의 효용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었습니다. 1500만 달러, 한화 170억 원이라는 총 상금 규모까지, 하늘이 내 준 기회같이 보였지요. 그러나 아직 매출이 안정되지 않아서 1, 2년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작은 스타트업이 5년짜리 장기 레이스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결과물을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회사로서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 때문에 이 회사에 있는 거라는 강력한 지지를 보내 준 덕분에, 이사회를 설득하고 임팩트 투자 기들로부터 추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전체 과정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승으로 게임과 교육을 결합한 최고의 프로그램임을 인정 받은 셈이네요. 에누마의 프로그램이 가진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게임을 교육에 결합할 때, 게임처럼 보이는 형식보다는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두뇌에 재미있게 느껴지는’ 경험을 기반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게임과 교육을 결합한’ 서비스들에 비해 형식이 훨씬 교육 교재에 가깝고,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플레이할 때에 더 재미있게 느끼지요. XPRIZE의 필드 테스트 결과를 보면, 깃킷스쿨을 배정받은 동네의 아이들이 경쟁제품에 비해 3~4배 정도 더 많이 태블릿을 사용했어요.

세계 각국의 문맹 퇴치에 쓰이기 위해 프로그램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나요?

XPRIZE에서 사용된 버전은 아동이 한 명당 한 대의 태블릿을 갖는 환경에서 최적화 되어있는데, 깃킷스쿨을 필요로 하는 환경은 여러 아이들이 태블릿 한 대를 나눠 쓰고 교사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 학교나 난민촌 센터 등이 더 일반적입니다. 현재 동아프리카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로힝야 난민을 위한 버전을 만들어서 방글라데시에서 국제구호위원회(IRC)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르완다 아동을 위한 영어 버전, 남미에서 사용되기 위한 스페인어 버전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엔씨소프트에서 일하시다가 두 분의 아이가 태어나며 창업하셨는데요. ‘내 아이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게 된 계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이건호 동문이 UC 버클리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휴직하고 함께 미국에 온 후였어요. 아이가 다양한 장애가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게임 개발자와 게임 디자이너라는 저희의 직업이 쓸모 없이 느껴져서 괴로웠었죠. 그때 아이가 입원해있던 병동의 의사가 ‘게임을 만들었다고?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너무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시기에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특히 중요했던 것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 그리고 삶의 시간을 주고 싶다’는 목표와, ‘우리가 인간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배워온 게임의 기술들이 이런 아이들의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이었어요. 둘이 한 마음으로 그 희망의 끈을 잡은 것이 이렇게 회사를 세우고 세상의 교육을 바꾸고 싶다는 도전까지 이어져온 것 같아요.

두 분은 학부에서 각각 조소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같은 학번의 동문 부부시죠. 어떤 학창시절을 보내셨나요?

저희는 하이텔의 서울대학교 동호회(SCCR)에서 만났고, 양쪽 다 중앙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자주 마주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각자 전공 영역이 있다보니 이건호 동문은 컴퓨터를 고쳐주고, 이수인 동문은 동아리에서 필요한 만화를 그려주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학부 때부터 연애를 하고 졸업하고 오래지 않아 결혼했지요. 그때 SCCR 안에, SNURPG라는 회원이 열명도 되지 않는 게임 연구회가 있었어요. 그 소모임 친구들이 졸업하고 차례차례 게임회사에 여기저기 입사했는데 지금 그중 많은 수가 에누마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에누마가 준비하는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

유네스코의 2017년 리포트에 따르면, 60%의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읽기와 썬하기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이 수가 90%에 달하죠. 학교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문맹 상태에 있는 아이들 2억5천만 명 중 1억 9천만 명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학교를 짓고 커리큘럼을 만들어도 교사가 갖춰지지 않으면, 혹은 아이들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습의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중언어 사용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괴로움은 더욱 크지요. 저희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값비싼 교육의 가격을 낮추고,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학습이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 냈으므로써 인간의 기초 교육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논의되고 있듯이, 모든 인간이 공공 기초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서울대사람들의 이번 호 주제는 ‘나눔으로 세상을 잇다’입니다. 우리 시대 올바른 공공성의 실현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회사를 시작하면서 ‘미션 드리븐 회사 Mission-driven company’라고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이윤을 낸 후 NGO에게 나눠 사회공헌을 하면 된다’고 조언하셨어요. 정 가난한 사람을 가르치고 싶으면 차라리 비영리단체로 시작하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회공헌에 쓸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을 가능케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최고의 팀을 모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회사의 성장과 미션의 실현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한 제품이나 개발도상국의 문맹 아동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난민촌에 사는 소수민족을 위한 제품을 납품하면서, 기업의 활동은 단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하는 결과로만 정의되지 않고, 그 과정 자체로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기업 문화는 기업의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고, 더 옳은 채용과 더 옳은 소비를 하려는 기업의 노력은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끼치며, 기업의 목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에누마가 선택한 고객, 제품, 제품을 만드는 방법에 이르는 저희의 모든 것들이 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 방향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혁신적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대 비영리 재단이다. 세계적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인류가 풀어야 할 긴급한 문제들을 논의한 후, 대회의 이름을 정하고 편성한다.



• 깃킷스쿨 유아기 발달단계부터 초등 2학년까지의 교육 과정을 담은 학습 어플리케이션. 게임 기반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태블릿만으로 자기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 인터뷰 전문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지구촌 과학기술 나눔운동

“저는 제가 하는 공부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80년대에 서울대를 다닐 때부터요. 어디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당시 한국은 중화학공업을 바탕으로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던 시기였다. 환경공학, 그중에서도 물 문제를 연구한 윤제용 교수는 1999년 서울대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전국의 정수장을 돌아다니며 우리나라 수질 문제 개선에 도움을 주는 현장 전문가로서 역할을 했다. “지금 저는 수돗물을 그냥 마셔요. 한국의 상수도 시설과 수질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에요. 제 커리어의 발전이 우리 사회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것이죠. 서울대에 오면서 이제는 어떻게 사회공헌과학문적 추구를 결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시야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향했다. 2009년, 같은 학부 유영제 교수와 ‘과학기술을 통한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비전으로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SEWB Scientists and Engineers Without Borders)’를 창설했다. “처음에는 해외 사례를 공부했지요. 2013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한 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300명의 아이들이 씻고, 먹을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일이었다. 기존에 쓰던 우물과 빗물을 활용하는 방법 등 몇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동료들과 함께 간이정수장을 설계했다. 환경부의 해외 ODA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자금을 받고, 현지 주민과 함께 공사했다. “자신감을 얻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도국 지역사회에 필요한 문제를 한국의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지원 기관인 ‘지구촌 기술나눔센터’를 만드는 데도 관여했지요. 캄보디아 외 4개국에서 개도국 적정기술 지원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룬 발전의 경험은 세계와 공유할 가치가 있어요.
특히 과학기술 지식의 나눔은 지속가능한 지구촌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춧돌이죠.

나와 사회의 연결이 빚어내는 더 큰 성장

뜻있는 이들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던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의 활동이 커지면서 그는 이 일이 개인적인 사회봉사를 넘어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시간을 쪼개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업 자체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교수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적정기술학회를 만들어 소외된 지역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아카데믹한 장을 마련했죠.” 이어 글로벌사회공헌단에도, 서울대 사회공헌교수협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는 서울대인으로서 크고 작은 혜택을 받고 있고, 서울대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모든 서울대인에게는 학문적 수월성뿐만 아니라 공공적 리더십이 마땅히 요구된다’는 평소의 신념에서 기인한다.

20년간 몸담아온 서울대학교를 잠시 휴직하고 그는 2018년 12월, 3년 임기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맡았다.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해야 하는 세계적인 요구와 책임도 늘고 있고요.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때부터 추구해온 실천적인 노력을 기관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성장이 사회의 성장과 연결되고 국가와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일치하는 것.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가 성장과 실패의 경험을 고루 나누고 협력하며 발전하는 것. ‘상생’은 그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습이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환경 관련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통해 환경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되었다.



치유와

열정

이효민

의학과 97학번

대학병원 의사에서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가

남부러운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다.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로 근무하던 의사 선생님은 어느 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 밖 다른 삶이 궁금하더라고요. 무작정 의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의사직이니 그걸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다가 국경없는 의사회를 알게 됐죠.” 전쟁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곁에서 조건 없는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없는 의사회(MSF Medecins Sans Frontieres)’. 이효민 동문은 한국사무소가 세워진 2012년부터 지금까지 활동가로서 세계 곳곳을 누비는 마취과 전문이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수술에 필요한 마취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었어요. 인터뷰를 하고, 떠나기로 마음먹고, 다니던 병원에서 6주 정도 휴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사직서를 냈죠.” 첫 번째 파견 지역은 나이지리아. 모성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었다. “충격이었죠. 그간 수련받고 일하면서 썼던 대부분의 장비와 약 없이, 제 손과 머리만으로 일해야 했으니까요. 혹시 한국이었다면 이 환자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무력감도 느꼈고요.” 한 달 반, 임기를 마치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무작정 길 위를 걷고 나니 ‘한 번은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8년 영국에서 열대위생의학을 공부한 한 해를 빼고 8년 동안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필리핀, 남수단, 파키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지난해 라이베리아까지 벌써 11번째 파견을 마쳤다.

아프리카나 다른 저소득국가에서 일하면서 의사라는 일의 가치를 훨씬 잘 알게 됐어요.
제가 하는 작은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 느끼죠.

누구에게나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24시간 언제 무슨 일이 생기든 이상하지 않은 상황. 어디든 파견 현장의 하루는 밀도 높다. “익숙해졌다 해도 언제나 스트레스는 있지요. 가장 힘들었던 건 교전 지역을 커버한 남수단 프로젝트였어요. 날마다 폭격 소리를 들으며, 매일매일 들이닥치는 총상 환자를 보는 게 쉽지 않았죠. 본부에 요청해서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돌아와 심리상담을 받았어요. 그 이후엔 모든 종류의 전쟁에 반대하게 됐습니다.” 보통 1~3개월, 매년 1~2회 활동가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활동이 끝나면 길게 여행을 떠나거나 파견지에서 사용하는 프랑스어 공부 등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다. 남은 시간은 한국에서 프리랜서 의사로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번다. “10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생활이 참 만족스럽습니다. 시간을 오롯이 제가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국경없는 의사회 한국 활동가는 30여 명. 그중 의사는 9명이다. 많은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처음 떠났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묻는 선후배도 늘었다. “저처럼 사직을 결심하고 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나 언어 능력 등이 필요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퇴직 후 삶을 계획한다거나 유럽의 병원처럼 한두 달 개인 휴가를 낼 수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죠.” 학창 시절 그 흔한 배낭여행도, 의료 봉사활동도 관심이 없었다. 다만 이 동문은 때마다 결정의 순간에서 스스로에게 충실한, 보다 옳은 선택을 내리려 노력할 뿐이다.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오늘 그렇듯이 미래도.

국경없는 의사회



19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한 국제 인도주의 민간 의료 단체.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고난에 처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배움은 널리 나누는 것

평생교육원



박준희 · 소승민 · 박지연 · 최승의 · 배은아 · 김신애 · 송우정 (뒷줄 왼쪽에서부터)

온오프라인, 대학의 문을 열어 지식을 나누다

2010년 개원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개원 초, 온라인에 집중되었던 교육 과정은 점차 오프라인으로 확대되었고 수강 대상 또한 일반 시민에서 학부모, 청소년 등으로 범위를 넓혀왔다. 최근에는 관악구, 평창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과 협약을 맺어 평생교육원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더욱 많은 이들이 배움을 ‘평생’ 실행에 옮기도록 유의미한 행보를 이어간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 새로운 강의를 기획할 땐 시행착오가 뒤따르기도 했다. 개설 이전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면밀한 사전 학습, 수요 조사 등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지켜온 뚜렷한 기준은 있다.

“학습자의 니즈와 교수자의 교육 방향이 잘 어우러지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삽니다. 필요로 하는 지식이 있어 평생교육원을 찾는 분들인 만큼, 교육 대상자에게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자체화와 협력하는 커리큘럼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발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농업 전문성 향상을 돋는 강의와 소외 지역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양 과정을 운영하고 있듯이요.”

지식에 목마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땀 흘리는 평생교육원은 크게 전문교육과정부, 시민교양교육부, 기획협력부로 구성된다. 기획협력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특별 과정의 진행과 신규 과정 설계를 담당한다. 전문교육과정부에서는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산림치유지도사 1급·2급 과정, 음악교육전문지도자 과정 등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자격과정은 수업받길 원하는 학습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습니다. 교수님들의 꼼꼼한 지도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운영 노하우가 시너지 효과로 이어져 기쁩니다.”

**서울대학교에 몸담는 이에게는 그만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실립니다.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지식 공유를 실현하겠습니다.**

학부모, 시민, 청소년들과 나눠 갖는 성장의 기회

시민교양교육부는 서울대학교 교·강사가 질 높은 커리큘럼을 통해 일반인에게 다양한 주제로 강의하는 ‘시민교양과정’, 청소년 및 학부모의 소통과 진로 탐색을 돋는 ‘청소년방학과정’을 담당한다. 평생교육원의 직원들은 강의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학습자를 직접 만나며 운영 주체로서 교육과 성장의 보람을 고스란히 함께 느낀다.

“예민한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과 부모님이 ‘부모 자녀 소통 캠프’를 통해 하루 동안 함께하며 관계 개선과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는 후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청소년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이 성장하여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평생교육원의 멘토로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마주합니다.”

시민교양과정 중 ‘산문 창작 교실’ 강의를 들으며 취미로 글쓰기를 해오던 수강생이 작가로 등단한 일화를 통해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이 자기계발을 넘어 새로운 직업으로 이어지는 모습에서도 보람을 느꼈다고 덧붙인다.

평생교육원 구성원들은 지식 나눔이란 거창한 것이 아닌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력풀이 보다 다양한 통로의 교육 현장에서 수강생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평등한 학습의 기회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해 나날이 널리 주어지고 있다.

고등 학생을 위한 ‘미리 들어보는 대학 강의’

관심 있는 전공 분야를 미리 경험해보도록 여러 학과의 서울대 교수진이 강의한다. 학문에 더욱 흥미를 갖기도, 진로를 다시 고민해볼 수도 있어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혼자였으면 못했을지도



하나, 둘, 셋. 쉼표처럼 이어지는 사회공헌 활동

누군가 시키는 일이었다면 벌써 그만두었을지도 모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 방학마다 발걸음을 붙잡는 사회공헌 활동. ‘중독’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들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현지 학생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2018년부터 세 번 연속 베트남 빈딘 봉사단에 참여했다. 빈딘성 여러 학교에 정수시설을 설치해주는 활동이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설계, 현지 자재 조달, 사전 방문 허가 요청 등 행정적인 것까지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니까요. 몇 달 동안 준비해서 방학 2주간 활동, 돌아와 마무리하면 한 학기가 다 지나가버려요.” 고등학생 때부터 적정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공과대학 동아리 기술나눔단 VESS Volunteering Engineers and Scientists of SNU에 가입했다. VESS는 글로벌사회공헌단의 해외 봉사단에 기술 스태프로 꾸준히 동아리 인원을 파견하고 있다. “세 번 연속 같은 베트남 지역에 가서 저희가 이전에 세웠던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하죠. 경험을 바탕으로 단원들의 체력 분배라던가 기존에 못 했던, 아쉬웠던 부분도 개선하고요.” 대학생으로서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 그 속에서 만나는 새로운 문화와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이다. “저에게 사회공헌 활동은 쉼표 같아요. 매번 귀국할 때마다 이렇게 힘든 일은 이제 그만 해야지, 마지막 마침표를 찍겠다는 마음으로 하는데, 어느새 또 다음 기수 준비하고 있는 저를 보거든요.” 활동하면서 얻은 용기를 바탕으로 이번 해에는 봉사활동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 한다는 김현지 학생. 앞으로 그가 찾았을 관심이 무엇이든 그 안엔 베트남에서의 따뜻한 경험이 녹진히 담기지 않을까.

항상 친구들에게 딱 한 번이라도 가보라고 하거든요. 힘들지만 왜 계속 가게 되는지 알 거라고.

나에게 사회공헌 활동은 삶의 ‘신념’이다

“입시 준비를 하면서 저만의 장점을 만들기 위해 빙곤 퇴치 사회 정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사회공헌 활동이 생각보다 제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고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인지 늘 고민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김한솔 학생에게 사회공헌은 신념이다. 지금 하는 공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사회적 책임 의식은 중요한 축이다. 그는 치의학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학부 시절엔 다양한 활동을 해보겠다 다짐했다. 문화예술을 좋아했던 터라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배리어프리 뮤지컬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프로그램 준비를 시작으로 2년 동안 광주, 덕적도, 군산, 제주 등을 돌아다니는 공헌 유랑단,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문화나눔 해외 봉사단 등에 참여했다. “비슷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재미있었어요. 자연히 내 안에서 사회공헌은 어떤 것인가 되어야겠구나, 나는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그곳에서 느낀 가치들을 삶에서 어떻게 구현해야겠구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 팀원, 팀장, 학생사회공헌단 부단장, 단장직을 거치며 함께 활동했던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시간을 조개어 팀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새 개인적인 일은 뒷전이 되고, 번아웃이 오기도 하거든요. 열심히 하더라도 스스로 소진되기 전까지, 본인 상태를 쟁기고 자기를 돌보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올 방학에도 상하이와 캄보디아로 의료봉사를 떠날 계획이라는 김한솔 학생. 바쁜 나날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의 단단한 삶을 쌓아가는 힘이기에.

글로벌사회공헌단 사눔 리더스클럽

학생들이 사회공헌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 운영하는 학생 멤버십 제도.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서울대 구성원에게 명패, 굿즈 제공 등의 혜택을 수여한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나눔의 모습

샤눔 다문화 공헌단 이웃사랑 심포지엄 과학나눔 프로그램

따뜻한 마음, 실천적 행위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나눔의 형태는 이제 다양하고 세분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색다른 프로그램 속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서울대인의 나눔 DNA를 찾아보자.

세계 시민으로서의 서울대인이 되어 샤눔 다문화 공헌단 출범



2019년 첫 출범한 샤눔다문화공헌단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중국, 몽골,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국제 학생과 다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국내 학생으로 구성됐다. 다문화 관련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다국적 학생들이 함께 다문화 관련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수행한다는 점에 그 의미를 둔다.

공헌단은 2019년 11월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와 연계해 ‘2019 난민가정 통합지원 사업 지역주민 초청 공동체 보고회’ 행사에서 첫 활동을 수행했다. 난민들과 함께하는 아이돌봄, 요리교실, 공연보조, 모금물품 판매 등을 주요 활동으로 진행했다. 2020년 1월에는 상록야학을 방문해 어르신들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영어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1기 단원 학생은 “평소 쉽게 만나기 어려웠던 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난민 가정의 한국 정착과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난민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정착했으면 한다”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인의 나눔 DNA를 찾아서

나눔 문화와 이웃사랑 심포지엄



2019년 11월 중앙도서관 관정관 양두석홀은 ‘나눔’을 주제로 한 토의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과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가 주최한 ‘서울대학교 나눔 문화와 이웃사랑 심포지엄’이 열렸기 때문이다. ‘서울대 학생들의 나눔 문화 실태조사’에서는 학생들의 나눔에 대한 인식, 봉사 경험과 동기 등을 엿볼 수 있었다. ‘비대가성’과 ‘자발성’이 나눔의 가치였으며, 봉사에 참여하는 가장 큰 동기는 순수하게 남을 돋고자 하는 데에 있지만, ‘새로운 지식 습득 및 경험을 쌓기 위해’ 그리고 ‘직업과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에’라는 응답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김동일 대학생활문화원장은 “학생들이 나눔을 통한 주고받음의 문제에서 ‘받음’이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봉사활동 참여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한편 ‘이웃사랑 참여자들의 나눔 DNA’를 주제로 한 연구 발

표도 있었다. ‘이웃사랑’은 서울대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생활문화원 소속 부서다. 학생들은 이웃사랑의 장점으로 학교에 특화된 봉사활동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해준다는 점을 꼽았다. 서울대인의 주체적 나눔과 공헌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서울대인의 나눔 문화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 볼 수 있는 장이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과학 문화를 접하도록

‘나눔의 선순환’ 과학 나눔 프로그램



자연과학대학은 다양한 ‘과학 나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화려한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무대에서 생소한 자연과학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공연 형식의 ‘자연과학공개강연’은 1994년 시작하여 26년간 운영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카오스재단의 후원으로 매년 2월 개최되며 일반인 누구나 신청해서 즐길 수 있다. 한편 매년 여름에는 3박 4일 동안 ‘자연과학 체험캠프’가 운영된다. 일반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경쟁률이 3:1에 이를 만큼 인기가 높다. 입시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요과학 공개강좌’에서는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수학, 통계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학사, 뇌과학)를 소개하는 강의가 열린다.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학생회 여름과학캠프’ 및 ‘GLEAP’ 나눔 활동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소외 지역의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자연

과학 분야 소개 및 전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멘토링에 참여했던 초·중·고등학생이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하고 멘토로 참여하여 다시 나눔을 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자연과학대학의 나눔 프로그램은 자연스러운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며 사회 곳곳에서 과학 문화의 저변을 넓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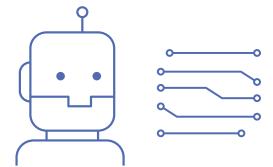
서울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다

AI 연구원
심포지엄 &
SNU
국가전략위원회

인공지능, 교육 혁신, 인구
구조 변화. 지금 우리 앞에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시대적 과제가 놓였다.
이제 서울대학교가 내놓을
답은 무엇일까?

AI 연구원 심포지엄

인공지능, 서울대가 고민하는 우리들의 미래



미래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원천으로 꼽히는 인공지능. 서울대학교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여 서울대 연구공원과 낙성대 일대를 AI 및 4차 산업 혁명 클러스터로 삼아 AI 기술 전반에 대한 연구 공간으로 기획한 ‘AI 연구원’의 문을 열었다. AI 연구원(원장 장병탁)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술적인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기타 학문과의 융합을 추구한다. 또한, AI 기술을 가진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계하여 구축한 AI 선순환 거점을 마련한다. 2019년 12월 4일 교수회관에서 열린 발족 기념 심포지엄에서 전병곤 AI 연구원 부원장은 AI 칩, 시각과 지각, AI 의료기술, AI 관련 법과 윤리를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꼽았다. AI 칩 프로젝트는 AI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 공정, 소자, 회로, 아키텍처 등 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설계하고 소프트웨어 혹은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화하는 것이다. 시각과 지각 프로젝트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 등 인간의 감각기관을 모사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연구한다. AI 의료기술 프로젝트는 데이터 기반 정밀 의료와 AI 기술을 이용한 의료 서비스 혁신을 연구하고 AI 관련 법과 윤리 프로젝트에서는 AI 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법적, 제도적, 윤리적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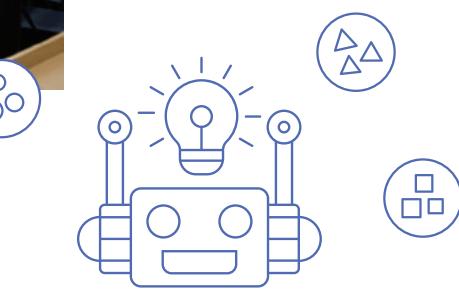
AI 연구의 분류

- 원천 기술** 학습과 추론, 시각과 지각, 언어와 인지, 로보틱스와 행동, 데이터 지능, 인간-AI 상호작용, 자율주행 등
- 응용 기술** AI를 금융/마케팅, 바이오, 뇌연구, 의료기술, 인문/예술, 소재/부품/장비 등에 적용하는 기술



AI 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엄의 모습

국가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기능해온
‘국가정책포럼’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사회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공공 싱크탱크인
‘SNU 국가전략위원회’로



오세정 총장이 SNU 국가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SNU 국가전략위원회 출범

서울대학교의 자성이 대한민국 성장을 이끈다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사회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공공 싱크탱크인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이하 SNU 국가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 기능해온 국가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2019년 12월 4일 ‘대학의 미래, 서울대의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제11회 SNU 국가정책포럼이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열렸다. 서울대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해온 ‘국가정책포럼’을 확대·개편해 지난해 8월 설립한 ‘SNU 국가전략위원회’의 첫 행보다. SNU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인 홍준형 교수의 개회사 및 오세정 총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가경쟁력과 대학, 대학교육과 미래인재상, 대학의 사회적 기여’라는 3 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김도연 명예교수(재료공학부, 前교육과학기술부 장관)는 이스라엘의 대학혁신과 국가발전 사례를 제시하며 경직된 사고와 관행을 타파하고 대학이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과 교수가 지식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혁신의 장이 되도록 인재-지식-창업, 창직 연계를 통해 대학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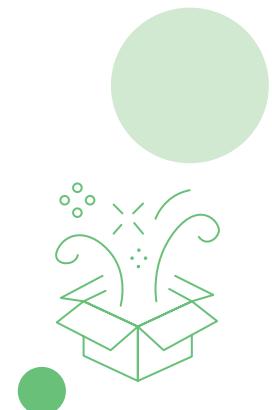
이어 권오현 교수(독어교육과, 前입학본부장)은 기존의 한국 교육이 개별화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의 교육 전제는 창의성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학도 전공 디자인, 학문적 융복합, 역량기반 교육, 학교-대학 연계 등 다양한 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덧붙였다.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의 협주소와 자성 노력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석재 철학과 교수는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에도 큰 혁신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또한 경희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미국 시카고대학교를 사례로 들며, 서울대가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는 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했다. 11일에 열린 12회 SNU 국가정책포럼에서는 ‘다가온 인구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20년 이상 장기화한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논의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론의 장을 목표로 출범한 SNU 전략위원회가 학교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SNU 국가전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비전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공공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창의를 다해서 새로움에 도전하라

신입생 세미나
특별 강의
창의와 도전

기초교육원은 21세기에
필요한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해 학부 교양교과목
<신입생 세미나> 내
특별 강좌를 개발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의 첫술을 뜯
'창의와 도전' 과목을
살펴본다.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연구하는 수업에서
신입생은 학문적인 사고방식에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게 된다.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관심이 진지한 탐구로 이어지도록 관련 분야의
연구 문제나 방법론 등을 제시한다.



'공학도를 위한 금속공예' 강좌

2019학년 2학기 신입생 세미나 '창의와 도전' 개설 강좌 목록

| 주제 | 담당교수 | 소속 | 정원 |
|------------------------------------|----------|--------|-----|
| 인문학과 컴퓨터 공학의 만남 (조선시대 지도 그리기) | 김건태 | 국사학과 | 12명 |
| 데이터가 사는 세상: 기하 위상적 성질 | 임선희 | 수리과학부 | 12명 |
| 수와 방정식의 이야기 | 권재훈 | 자연과학대학 | 15명 |
| 자연을 바라보는 과학자의 눈 | 최선호 | 자연과학대학 | 12명 |
| 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은 과학이다. | 김상우, 박록진 | 자연과학대학 | 15명 |
| 미래를 여는 연금술사 | 박은수 | 재료공학부 | 12명 |
| 누구를 위한 예술인가? : 공공을 위한 공공에 의한 미술 | 박제성 | 조소과 | 15명 |
| 수학교육의 도전과 미래 | 권오남 | 수학교육과 | 15명 |
| 공학도를 위한 금속공예* | 최인석 | 재료공학부 | 7명 |
| 유전자 편집 동물에 대한 이해* | 장구 | 수의학 | 5명 |

*동계계절학기 강좌

서울대생, 연구하고 싶은 거 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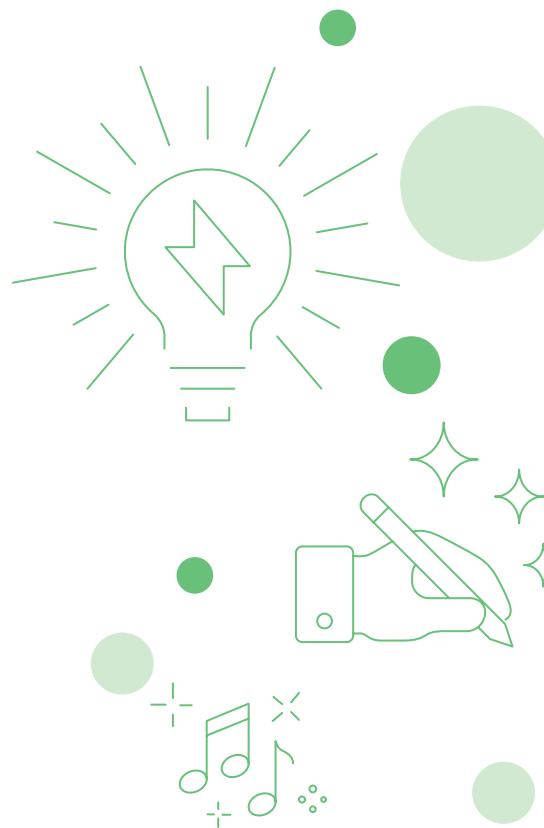
2019년 2학기, 특별한 강좌가 개설됐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신입생 세미나: 창의와 도전> 과목이다. 단순한 정보 암기와 수동적인 지식 수용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신이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탐구하고 주체적으로 연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강좌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연구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게 짜였다. 운영 방식은 강의, 소그룹 활동, 1:1 또는 소그룹 면담, 현장 체험 등 다양하다. 모든 강의의 수강 정원은 10~20명 내외로 소규모로 이뤄진다. 학기 당 수 강학점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며 S(급)/U(낙)으로만 성적을 평가하여 학점 부담을 덜었다. 유재준 기초교육원장은 이 독특한 수업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때까지 정답과 오답으로만 이루어진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에게 신입생 때부터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수업'을 마련해주고 싶었다고. 학점에 얹매일 필요도, 틀림까 봐 전전긍긍 할 필요도 없는, '기회를 살려주는 교과목'인 셈이다.

따라서 지난 학기 기초교육원의 학부 교양교과목 <신입생 세미

나> 내 특별 강좌로 개설된 8개의 '창의와 도전' 수업에서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주제들을 만날 수 있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과 현황, 해결방법을 학생들과 탐구한 김상우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어플로 수치 확인하고 마스크만 쓸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내보내고 있다는 거, 따라서 미세먼지가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임을 알려주고 싶었어요"라고 밝힌다.

학생들은 설문조사도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실험하고, 기존의 연구자들이 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도 가본다. 정해진 시나리오도 결론도 없이 학생 주도로 진행되다 보니 이 수업의 '도전'은 일견 실패하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그 실패를 징검다리 삼아 아무도 가지 못한 지점까지 나아가는 일이 바로 앞으로 학생들이 대학에서 하게 될 창의적인 연구가 아닐까?

'창의와 도전' 수업의 또 다른 목표는, 이제부터 학생들이 배우게 될 학문이 대학의 울타리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맞닿아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서울대학교의 노력인 셈이다. 신입생들이 소규모 강좌에서 교수, 멘토, 동료 학생 등과 만나 학문탐구의 기본태도를 형성하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이들이 훌륭한 연구자로 자라기 위한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자연을 바라보는 과학자의 눈'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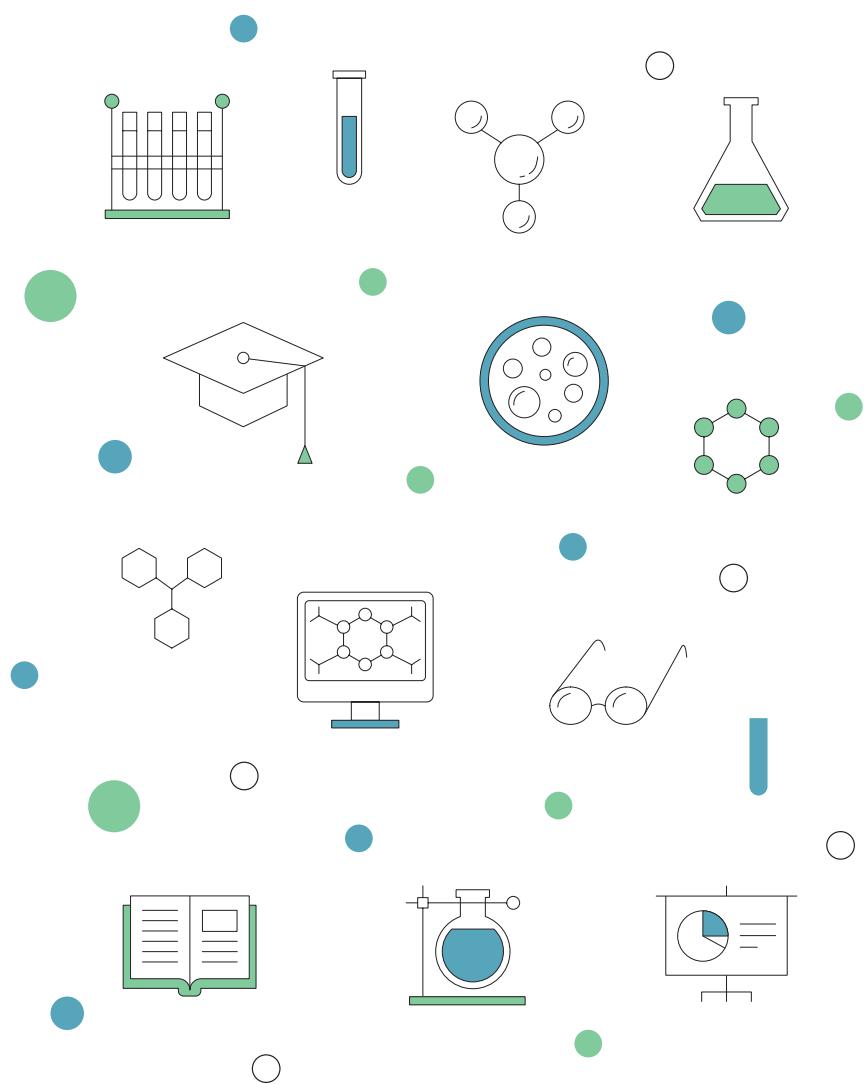
교수님, 감사합니다!

2019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탁월한
연구실적을 내고,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강의로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학술연구교육상 수상자
20명이 선정됐다.

2019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 부문, 교육 부문) 수상자가 선정됐다. '연구 부문'에는 24명의 우수한 교수들이 후보자로 추천됐으며, 2단계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10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인문·사회계열 3명, 이공계열 4명, 의약계열 3명이다. '교육 부문' 수상자는 인문·사회계열 3명, 이공계열 5명, 의약학계열 2명이다. 연구 부문 시상식은 2019년 12월 9일(월), 교육 부문 시상식은 2019년 12월 16일(월) 개최됐다.

서울대학교는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서울대학교의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학술연구상'을, 수준 높은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를 선정해 2005년부터 '교육상'을 매년 시상해 왔다. 2018년 두 상을 통합해 매 학기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 부문, 교육 부문)을 시상하고 있다.



연구부문

박태성 교수 |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국내 생물통계 및 생물정보학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박승범 교수 |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부 유기화학 분야를 담당하면서, 분자다양성 연구과 신약개발의 원천이자 기초인 화학생물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주우진 교수 | 경영대학 경영학과
유통 및 자동차산업 연구를 수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으며 정보경제학 이론을 유통학에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한국과 미국 공정거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재정 교수 |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화학공학을 반도체 공정의 핵심 분야인 금속 배선 공정에 적용하여 차세대 반도체 산업 개발에 크게 기여한, 독보적인 화학공학 전공자이다.

유상열 교수 |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식품미생물학을 담당하면서, 식중독 세균의 병원성 유전자 발현 조절과 식중독균과 항생제 내성균 제어 신기술 개발과 신속 검출법 개발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수준을 향상시켰다.

교육부문

이상승 교수 |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심혈을 기울인 강의교재와 뛰어난 강의를 통해 어렵게만 느끼던 수학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끌어 준다는 학생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최연희 교수 |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식물 분야 관련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학부생들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에 역점을 두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환 교수 |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무기화학을 주로 담당하여 2015년·2016년 자연대 우수강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단행본으로 구성된 유기무기실험 강의교재 및 과학기술 글쓰기 및 표절방지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윤우 교수 |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화학생물공정실험> 과목 개편을 주도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과목으로 개선하였다. 공학전문대학원 청립준비단장과 학과장으로 공전원 설립 과정 및 수요 및 출형 교육에 혼신하였다.

전병곤 교수 |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4차 산업혁명에 근간이 되는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포괄적으로 가르쳐 각 산업 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민현식 교수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의 문법교육 전공 교수로 문법교육, 국어정책, 개화기 국어 연구와 한국어 세계화에 힘쓰면서 한국어문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봉진 교수 | 약학대학 제약학과
물리약학 과목을 담당하면서, 항생제 및 항암제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약물표적 단백질의 3차원구조 연구로, 단백질 구조에 기반한 신약 개발 연구가 우리나라에 자리잡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나영 교수 | 의과대학 의학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소화기질환을 진료하는 의사이자 의대 교수로서 위암, 소화성궤양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김염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정민 교수 | 의과대학 의학과
영상의학과 소화기 영상의학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소화기계암의 초기 진단 및 정확한 솔전 병기 결정을 통해 소화기계 암 환자의 진료에 많은 공헌을 했다.

박태균 교수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국제대학원의 한국학전공을 담당하면서, 특히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한국학 교육과 한미관계와 전쟁과 평화 등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Hong Sok(Brian) Kim 교수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해결학습방식이라는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다. 외국어강좌를 개발하고 서울대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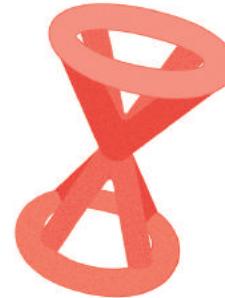
신좌섭 교수 | 의과대학 의학과
2012년 3월 설립된 의학교육학과의 초대 주임교수로서 관련 신규 교과목들을 개발하고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정립하였다. 서울대 의대의 교육 역량을 널리 알리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한경구 교수 |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설립부터 지난 10년 간 자유전공학부 교육의 기획과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서울대학교 학부교육의 모델을 제시한 선진적인 교육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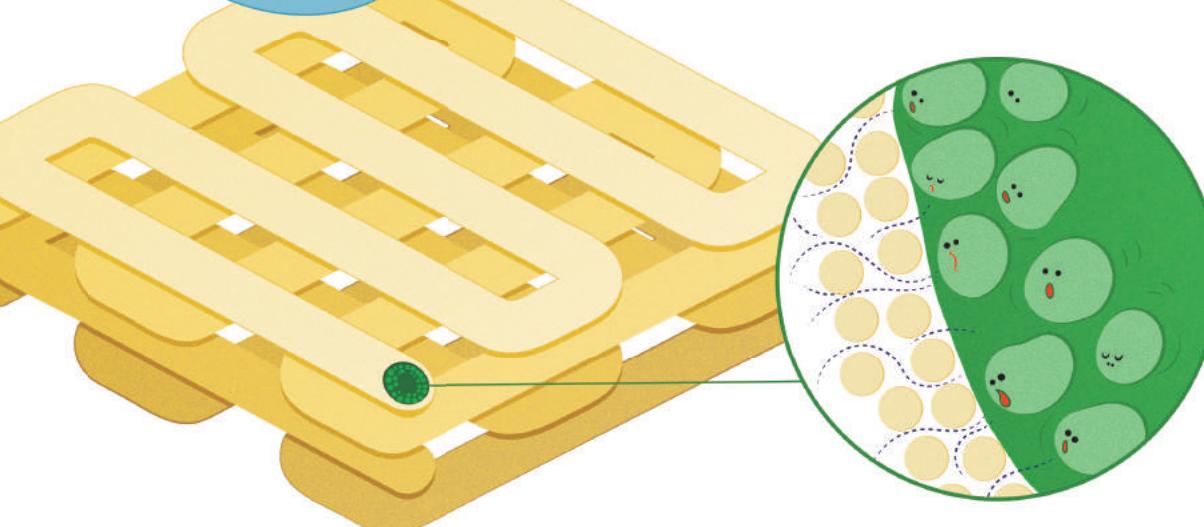
유승현 교수 |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건강증진 분야에서 독자적이고 참신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보건대학원 학생은 물론 많은 타 대학 학생도 수강하여 보건대학원 학습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근관 교수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공분야인 국제법 전반에 대한 깊은 지식, 외국어 능력, 학생들과의 공감 및 소통 능력, 폭넓은 국제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활발한 교육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박테리아를 제어해 3차원 입체구조 만들기



현진호 교수,
농업생명과학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살아있거나 생물학적으로 기능하는 입체구조를 마음대로 만든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릴 적 TV 영화에서 본 '우연한 기회에 텔레파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거미를 제어해 3차원의 구조체를 만든다'는 내용 덕이다. 현재 3D 프린팅 기술로 3차원의 구조체를 제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화가 불가능한 생물의 행동을 3차원으로 제어하는 것과 단순히 3차원 구조체를 제조하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인터넷에서 3D 프린팅을 검색하면 기계 부품, 피규어, 의학용 장기 모델들까지 다양한 구조물이 나온다. 하지만 이렇게 제조된 3차원 구조체는 대부분 단단하고 치밀한 구조를 갖고 있어 생물학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필라멘트나 액상잉크 대신 사용하는 바이오잉크는 액상이나 물을 다량 포함하는 하이드로겔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점도가 낮아 프린팅된 3차원 구조가 쉽게 무너져 내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미세입자를 가득 담은 용기 안에 액상의 바이오잉크를 프린팅하기로 했다. 미세입자는 소수율을 띠고 있어 친수성이 있는 바이오잉크가 미세입자 표면을 타고 퍼지는 것을 방지한다. 미세입자 매트리스는 프린팅 정밀도가 높아지는 효과와 함께 프린팅된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대사활동을 통해 유용한 물질을 생성하는 박테리아는 많이 찾을 수 있다. 그중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를 생성하는 박테리아는 대사활동을 위해 산소가 필요하고, 때문에 공기와 접하는 표면으로 이동해 대사활동을 한다. 우리가 사용한 소수성 미세입자들은 둑근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입자들 사이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 또한 박테리아가 혼합된 잉크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소수성 미세입자들과 접촉이 제한되고 프린팅된 모양을 더 잘 유지한다. 산소 공급도 잘되고 프린팅 정밀도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구성이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이미 창상치료제나 미용 마스크팩으로 사용된다. 셀룰로오스 나노섬유로 구성된 도관 구조체는 생체적합성과 강도 특성이 우수해 인공혈관, 신경관, 요로 등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박테리아를 함유하는 바이오잉크로 3D 프린팅 후 일주일이 흐르면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구조체가 제조된다. 흥미롭게도 미세입자를 매트리스로 사용하면 박테리아가 산소 공급이 가능한 표면으로 이동하여 셀룰로오스를 합성하기 때문에 속이 빈 도관으로 구성된 3차원 구조체가 쉽게 만들어진다. 나노섬유로 구성된 셀룰로오스 3차원 구조체를 제조하는 것은 쉬운 공정이 아니다. 그러나 박테리아의 생리를 이해하고 활동을 제어할 수 있다면 다양한 3차원 구조체를 제조할 수 있다. 텔레파시 초능력은 아니지만 데이터 디자인과 컴퓨터의 도움을 통해서….



1 제 5 회 토론 한마당 개최

기초교육원은 2019년 11월 13일 제5회 SNU 토론한마당 본선 대회를 개최했다.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선(총 63팀, 143명 지원) 심사를 거쳐 본선에는 총 16팀(41명)이 진출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극단적인 사회 갈등을 고찰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열린 이번 토론 대회에서 학생들은 "우리는 타자의 권리를 부정할 권리가 있는가?"를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SNU 토론한마당의 토론 평가 과정에서는 심사위원뿐 아니라 학생들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이 직접 심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청중 누구나 토론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펼쳐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4팀, 장려상 8팀으로 총 16팀이 수상하였으며, 대상팀에게는 상금 200만 원의 부상이 주어졌다.

2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 업무협약

2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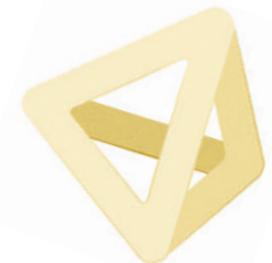
지난 1월 29일 서울대-국방부는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대 학생들은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사회봉사)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는 학교 밖의 학습 경험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017년)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사회봉사, 인성교육, 리더십 등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12개 대학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서울대를 비롯한 24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 교육의 내실화를 다지며 학생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2019년 11월 16일 법전원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제1회 '서울법대 모의법정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법정 대회는 로스쿨 개원 10주년을 맞아해 로스쿨 실무교육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모의재판> 교과목을 수강하는 법전원 2학년 재학생 전원이 3~5인씩 팀을 이루어 예선에 참가했으며, 본선에는 각

강좌에서 선발된 각 총 8개의 팀(총 36명)이 진출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실력을 겨뤘다. 결승전은 동문 법조선배들인 전·현직 대법관을 재판관으로 모시고 진행됐다. 결승전에 오른 원고팀(김보연, 김다빈, 송희권, 여인영)과 피고팀(이동명, 김민혜, 이도감, 전세은, 최다솜)은 서울법대 출신 전현직 대법관들(양창수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앞에서 열띤 경연을 벌였다.

3

3 제 1 회 모의법정 대회 개최



4 제22회 서울대-홋카이도대 공동 심포지엄 개최



2019년 11월 14~16일 관악캠퍼스 등에서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대학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서울대-홋카이도대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다. 심

포지엄은 1997년 10월 양 대학 학술교류협정 체결 1주년 기념으로 1998년도에 처음 개최된 후 22년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연례로 이어지고 있다.

5 서울대 창업 경진대회 '비더로켓 시즌5' 런칭데이 개최

서울대 창업지원단은 2019년 12월 13일 학내외 오픈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비더로켓 시즌5 런칭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패치를 개발하는 무니스튜디오(대표 박재성)가 대상을 수상했다. 비더로켓은 서울대학교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 전국 대학(원)생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공모해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7팀을 선발했다. 참가 7팀은 비더로켓 참가기간 중 수행할 마일스톤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부트데이를 시작으로 3개월

간 독립사무공간과 함께 아이템 개발에 필요한 법률, 특히, 회계·세무 등의 전문가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았다. 이번 런칭데이는 '콴다' 서비스를 운영 중인 매스프레소 창업자 이용재 대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참가팀이 그간 개발해 온 사업아이템을 일 반인과 투자자들에게 공개했다. 대상을 수상한 무니스튜디오(대표 박재성) 외에도 영양제의 섭취와 건강 상태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알틱스(대표 이혜민, 이정민)가 은상을, 옴니스랩스(대표 문귀환), 에이치씨랩(대표 김율), AKDK(대표 신민경 예비창업자)가 창업가정신상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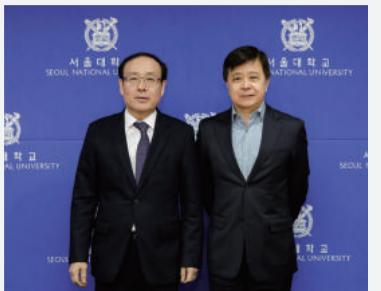


미지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협미경을 개발하는 알틱스(대표 이혜민, 이정민)가 은상을, 옴니스랩스(대표 문귀환), 에이치씨랩(대표 김율), AKDK(대표 신민경 예비창업자)가 창업가정신상을 차지했다.

6 중앙도서관 '정보서비스센터' 개설

중앙도서관은 2019년 12월부터 도서관 자료 이용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정보서비스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자료 대출과 반납을 위해서는 종합대출실을, 타 도서관 신청 자료의 수령과 반납은 상호대차실을 별도로 방문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정보서비스센터'에서는 이 두 업무를 통합해 서울대학교 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은 물론 타 도서관 상호대차 자료의 수령·반납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도 평일 업무 시간에서 저녁 9시까지 연장되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7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연구 협력



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기술로서의 AI 뿐만 아니라 정책, 사회, 문화 등 각 도의 노력이 함께 필요함을 강조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포괄적 AI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단순한 산업 측면을 넘어, 이번 협력은 국내 AI 도입 및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8 전기 셔틀버스 시범 운행 협약



서울대학교와 (주)와이즈웨이(대표이사 김철순)는 2020년 1월 30일 서울대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관악캠퍼스 전기 셔틀버스 시범운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김철순 (주)와이즈웨이 대표이사는 이번 '친환경 전기 셔틀버스 시범운행 협약'을 통하여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음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눴다. 친환경 전기 셔틀버스 차량은 한신자동차의 VANESSE 14인승 차량 2대로, 역방향 셔틀(호암교수회관 경유) 구간에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운행 예정이다. 서울대는 (주)와이즈웨이의 친환경 전기 셔틀버스 시범운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주)와이즈웨이는 학생 등 구성원의 셔틀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기부는 도약이다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한다.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다시 새롭게

한국을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국가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 온 서울대학교. 하지만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서울대학교는 커다란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를 맞았습니다. 오세정 총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서울대학교의 연구 수준은 이제 양적으로는 세계 어떤 대학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 질적으로 탁월한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제는 기존 분야에서 양적으로 많은 업적을 내는 것보다, 새로운 분야를 여는 근본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연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담대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world class)의 대학을 넘어 세계를 선도(world leading)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는 이제 어떠한 역할이 필요할까요? 변화하는 환경, 빠르게 달라지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는 창의적인 학문의 전당이자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책무를요합니다.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세계 앞에서 서울대학교는 지금껏 그랬었던 것처럼 본연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AI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여 그것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걸쳐 초래할 변화를 연구하고, 타인과 공동체를 두루 살피는 협동심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며, 지능형·융합형 스마트 그린캠퍼스 조성을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나가는 서울대학교의 노력. 이것은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며 미래의 혁신을 위한 막중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향한 서울대학교의 비전을 나누다

지난 11월 발전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출항을 알린 모금캠페인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는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다시 새롭게 도약하려는 서울대학교의 대학 운영 방향과 궤를 같이 합니다. 먼저 모금 사업을 통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와 ‘도전성’을 가진 연구자를 지원합니다. 새로운 학문적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를 이끄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진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미래선도연구기금’으로 연결되어 구체적으로 대학의 연구지원체계를 강화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쓰입니다. 대학 본연의 기능인 인재 육성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이끄는,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 시민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래세대장학기금’을 만들고,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장학 제도를 강화합니다.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협동과 공감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고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식 나눔과 상호 협력 활동도 진흥합니다. 마지막 ‘미래 혁신인프라기금’은 캠퍼스의 친환경적 리모델링,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에너지 절감 최적화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2020년, 서울대학교 앞에 놓인 과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매일의 묵묵한 실천이 아닐까요? 서울대학교는 앞에 놓인 미래의 풍부한 가능성을 믿고 구성원과 함께 천천히, 그리고 높게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의 더 큰 도약을 응원해주세요.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주요 모금 사업



미래선도연구기금

- 세계적
- 연구성과 창출
- 연구 지원체계 강화
- 4차 산업혁명
- 기술생태계 조성



미래세대장학기금

- 소통 능력 갖춘
- 글로벌 인재양성
- 맞춤형
- 장학제도 강화
- 지식 나눔 및
- 공헌활동 강화



미래혁신인프라기금

- 스마트캠퍼스 구축
- 인권 친화적
- 캠퍼스 조성
- 대학과 사회
- 소통 협동 강화

시대의 어른이 건네는 사랑



한평생 학자의 길을 걸어온 고결과 순수가 주중광,
허지영 부부에게 묻어난다. 흠 없이 반듯한 나이테는
조국과 후학을 위하는 지혜와 애정으로 채워졌다.

위대한 아버지의 희미한 발자취

일제 강점기 끝나고 서울대는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렸다. 때문에 편입생이었던 ‘허식’에게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명분으로 예과 수학 강의를 맡겼고, 1948년 졸업 후에는 3학년의 적분론 강의를 배정한다. 당시 전임 강사의 월급은 부모님과 처 그리고 두 어린 자식을 부양하기에도 빠듯했지만, 절박하게 수학 교육의 앞날을 걱정하던 젊은이는 가족이 잠든 샛방에서 중등 수학의 교과서를 집필한다. 허나 교과서가 출간되기 무섭게 발발한 한국전쟁.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서울대학교 교수와 학생을 소집하는 통보에 집을 나선 것을 끝으로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1947년부터 1950년까지 수학과에 재직한 허식 교수의 이야기는 곧 허지영 동문이 기억하는 애틋한 아버지 이야기다.

“2018년에 서울대학교를 찾아 김판기 교수님을 뵈었습니다.『한국 근대과학 형성자료』,『대한수학회사』 등에 짧게 기록된 아버지의 행적을 목이 멘 오빠가 읽어내려가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 허지영

우리 현대 과학과 수학 발전을 기록한 문헌에서 ‘허식은 한국전쟁 때까지 조교로 활동하며 강의를 맡기도 하였다’, ‘허식은 연희전문학교 출신으로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 되었다’와 같은 문장으로 허식 교수를 찾을 수 있다. 혼란하던 시절 허식 교수가 보인 사명감과 헌신을 높게 사며 2019년 가을, 수리과학부는 수학과 70년, 허식 교수 탄생 100년을 맞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조지아에서 대학교 오퍼레이터로 살아온 허지영 동문은 주중광 동문과 함께 이곳에서 자연과학대학 앞으로 ‘허식 교수 장학금’을 마련하여 자리를 빛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지 못한 채, 납북 사실조차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자취를 길이 남길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 허지영

치열하게 이룬 바, 지금에 돌아보니

주중광·허지영 부부는 은퇴 후 ‘The Chu Family Foundation’을 설립하여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끼이 손을 내미는 삶을 산다. 약학 및 신약 개발 연구로 우수한 성과를 낸 한국 과학자를 위해 ‘주중광 Lectureship Award’를 재정하고 가족 기부 재단을 통해 시상한다. 약학 연구를 독려하는 배경은 주중광 동문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약학자이기 때문이다. 조지아대학교 석좌 교수인 주중광 동문은 B형 간염 치료제인 ‘레보비르’,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 등을 개발했다.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고 후학을 양성한 공으로 2014년에는 권위 있는 더존 A. 몽고메리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부부는 이 밖에도 한국의 2개 대학, 미국의 8개 대학, 조지아 한글 학교에 장학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재단의 또 다른 행보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중 조지아에 적을 둔 직계 후손에게 장학금을 수여 하는 일.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아립니다. 당시 파병된 미군들은 상당한 애정으로 한국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전쟁에 짚음을 바친 이들의 후손 중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더군요. 그들에게 감사하며 조국을 위하는 마음으로 돋고 있습니다.” — 주중광

오랜 세월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부부는 한국을 잊은 적 없다. 한 해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면 매번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찾는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관악으로 향할 때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유학을 떠날 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제약 회사를 꾸려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교수 자리를 제안받으며 남게 되었지요. 돌아보면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풀-필한 사람입니다. 미국인보다 몇 배 더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하여 이룬 것을 조국과 모교의 발전에 보태고 싶습니다.” — 주중광

주중광(약학 60), 허지영(화학 66) 동문 부부는 졸업 후 국비 장학생으로 도미, 조지아에서 만나 결혼했다. 주중광 동문은 조지아대학교 석좌교수로 314편의 연구논문을 출판, 53개의 미국 특허권을 취득한 약학 권위자다. 허지영 동문은 수학과 허식 교수의 1남 2녀 중 둘째다.

2012

주중광·허지영
장학기금 및
학술강연지원금

2017

약대 20동 건축 및
시설 확충 기금
/선한인재장학금

2019

수리과학부
지정 기금
/화학부 지정 기금

어떤 찰나의 순간, 오래 남을 따뜻한 기억



단상에 올라서며, 안부를 묻는 전화 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치는 가제부를 쓰며.
그때의 공기, 소리, 냄새. 저마다 다를 테지만 장학금이라는 공통된 추억으로 새겨진 기억.
그 기억의 온기는 아마 생의 차가운 문턱마다 나를 지지해줄 따뜻한 힘이 되지 않을까요.

만족감보다 더 큰 사명감

서울대원기!(元氣)를 외치며 땀 흘리는 서울대 농구부의 선수들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농구를 취미나 여가 생활로 생각했다면 진작 농구부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구는 저에게 다른 방식의 공부였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과뿐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의 중요성 그리고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비롯한 소중한 가치를 농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2018년 2학기, 체육교육과 장학금 수여식에서 저는 양천식 장학금의 수혜자로 선정되었

습니다. 재일 교포 사업가인 양천식 선생님께서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마친 막내아들의 뜻을 기려 나라의 체육 발전을 위해 기탁한 기금입니다. 단상에서 상을 받던 제 머릿속에는 만족감보단 주어진 장학금의 사명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장학금을 받기 전엔 현실이라는 벽 앞에 굴복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신입생의 포부와 이상은 마음 한편으로 밀렸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나서 한국 체육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저의 모습이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장학금에 부여하신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배움에 열중하고 성장하리라 다짐합니다.



아버지의 어깨, 나의 기쁨

세 살 많은 오빠가 대학을 가던 해 겨울, 아버지의 어깨를 기억합니다. 오백만 원을 훌쩍 넘긴 등록금은 당당하던 아버지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밤마다 바쁘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방문 너머 통화 소리를 들으며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 울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내내 꼭 아버지에게 장학금을 줘여드릴 수 있는 대학교에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일원이 되었을 때, 합격한 것에 기뻤고, 부모님이 기뻐하셨던 기쁨과, 서울대학교가 장학금이 나오는 학교여서 기뻤습니다.

3월 하순의 어느 날, 무심코 확인한 통장에 처음 보는 단위의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몰라 발발 떠는 손으로 돈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장학금이었습니다. 주저 없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고, 핸드폰 너머였지만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쁨에는 저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장학금에 대한 고마움이 섞여 있었죠. 입학한 지 3년째 되는 지금도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나의 기쁨이자, 아버지의 자존심입니다. 장학금은 어두운 표정을 숨기며 웃음 짓는 아버지의 실력 없는 연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어느 누구와 같이 장학금은 나에게 큰 힘입니다. 의미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매월 나만의 기분 좋은 셈

정작 일하느라 남는 시간이 없었어요. 고민 하던 중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와 학교에서 주는 생활비 장학금이 있다 는 것을 알게 됐고, 운 좋게 지금 그 두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세며 식비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돼서, 남는 시간에 공부를 더 하고, 수업 사이사이 애매한 시간에는 일을 하니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죠. 만약 첫 달 월세를 마련할 때처럼 계속 살았다면 한 학기도 못 가서 지쳤을 것 같아요. 장학금이라는 선물로 그저 하루하루 살기 위해 움직이며 지친 몸과 마음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꼭 기분 좋은 셈을 끝낸 계산기에 내 온전한 하루를 신습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행사

모금캠페인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출범식

2019년 11월 21일 '발전위원회 출범식'이 있었다. 오세정 총장은 환영사에서 "앞으로도 서울대는 창의적인 학문의 전당이자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진리 탐구와 공동체를 위한 공헌에 매진할 것이며, 과학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수행할 글로벌 인재도 양성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라는 모금 사업의 출발 주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진 출범식은 신수정 서울대 총동창회장의 환영사, 손경식 공동위원장의 축사, 성기학 공동위원장의 위촉장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강준호 기획처장이 서울대 비전과 발전방향, 채준 발전기금 상임이사가 신규 모금캠페인을 각각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협약식 및 감사패 전달식

2019. 10. 24.

주중광(약학 60) · 허지영(화학 66) 동문 부부
자연과학대학 허식교수장학기금 등 30만 달러 약정

2019. 12. 23.

덕산건설(대표 박병주)
사범대학 관사장학금 1억 원 출연

2019. 10. 24.

김순균(의학 66) 동문
의대 정신과학교실/분당서울대병원 70만 달러 약정

2020. 01. 06.

이내건(경제학 55) · 이홍자(약학 63) 동문 부부
국제대학원, 경제학부, 이내건 · 이홍자 장학금 3억 원 출연

2019. 11. 05.

정병옥 · 이춘희 기부자
독어독문학과 '정현수 동문 가족 장학기금' 1억 원 출연

2020. 01. 13.

이기영(농생물학 82) 보건대학원 원장
보건대학원 가지현 · 이기영 발전기금 1억 원 약정

2019. 11. 19.

고옥자 여사(故홍승수 자연대 교수 배우자)
물리천문학부 관하천문학발전기금 2억 원 약정

2020. 01. 13.

정해문(자연대 명예교수) · 김옥진(생물교육과 58) 동문 부부
생물교육과 정해문 · 김옥진 장학기금 1.2억 원 출연

2019. 12. 04.

김호(계산통계학 84) 보건대학원 前원장
보건대학원 김호 · 안규정발전기금 1억 원 약정

2020. 01. 28.

故오정주 교수 유가족
음악대학 故오정주 교수 추모장학기금 1.2억 원 출연

2019. 12. 19.

크로바상사 (회장 이강홍, 경제학 60)
경제학부 발전기금 10억 원 출연

2020. 01. 28.

장대익 교수(자유전공학부 교수)
자유전공학부 벼리 학업 장려금 1억 원 약정

기금 출연자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SNU President's Honor Club · 100억 원 이상 출연

| | | | | | | | | | |
|---------------------|--|---------------------|--|----------------------|--|---------------|--|--------------------|--|
| 김정식 전자공학과 48일 | | 정석규 화학공학과 48일 | | 유희진 기계설계학과 78일 | | 이용희 태광사 회장 | | 윤대섭 농공학과 49일 | |
| 삼성 | | 관정이종환교육재단 | | SK | | LG | | 한국전력공사 |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한화 | | 포스코 | | 웅진 | | KT | |
| 신한금융 | | 영원무역 | | 현대자동차 | | 부영 | | 우리금융 | |
| 미래국제재단 | | | | | | | | | |

50억 원 이상 출연

| | | | | | | | | | |
|-----------------|--|---------|--|------------------|--|--------|--|-------|--|
| 조천식 정치학과 45일 | | 현대 | | 롯데장학재단 | | 풍산 | | 동진세미켐 | |
| 태영 | | IBK기업은행 |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 관악회 | | 금호아시아나 | | 두산 | |
| CJ | | 대림 | | 플라톤아카데미 | | 한진 | | SPC | |

SNU Gold Honor Club · 10억 원 이상 출연

| | | | | |
|----------------|----------------------|-----------------------|----------------|--------------------------------|
| 홍성대 수학과 57일 | 정영호 생물학과 47일 · 박양숙 | 이기영 前 의대 교수 | 김석수 자원공학과 73일 | 김철·이옥자 |
| 손동준 전자공학과 59일 | 신창재 의학과 72일 | 변무관 | 최창영 금속공학과 64일 | 원재연 경영학과 82일 |
| 박영희 수학교육과 54일 | 김연혁 히로세코리아 김사 | 주중광·허지영 | 유태용 토목공학과 50일 | 서정선 의학과 70일 |
| 전은기 · 김은희 | 박병준 섬유공학과 52일 · 홍정희 | 양두석 농어독문학과 69일 | 곽영필 토목공학과 56일 | 손장순 불어불문학과 54일 |
| 이순자 불어불문학과 57일 | 김명희 기악과 김형찬의 모 · 신정희 | 김윤식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가정혜 | 박상윤 | 박완서의 상속인 호원숙, 호원순, 호원경, 호원군 |
| 윤전수 · 이삼락 | 차상균 전기공학과 76일 | 백추현 | 민계식 조선항공학과 61일 | 정운환 일학과 56일 |
| 곽노섭 수학과 49일 | 신승일 화학과 57일 | 정덕균 전자공학과 77일 | 윤종용 전자공학과 62일 | 백형익 · 유근순 |
| 강옥채 | 김정식 건축학과 54일 | 민선식 경제학과 78일 | 박정혜 | 양운홍 전자공학과 63일 |
| 이필남 | 정혁진 기계설계학과 73일 | 삼익악기 · 스페코 |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 SK하이닉스 |
| 대우 | 메가스터디 | 카길애그리퓨리나 |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 하나금융지주 |
| 현대산업개발 | 동원 | 동양 | KB금융지주 | 대우조선해양 |
| 송원김영환장학재단 | 웅운장학회 | 대성 | 출판문화원 | 일진 |
| 형애장학회 | 풀림무악 | 한국가스공사 | 하나제약 | 미래에셋대우 |
| 현대중공업 | 녹십자 | 사회과학정보화교육연구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현대차 정동구 재단 |
| 생명보험협회 | 천재교육 | TOYOTA MOTOR CORP. | 신풍제약 | NHN |
| 신라문화장학재단 | 현승교육문화재단 | 한국수력원자력 | 쌍용양회공업 | 이연제약 |
| 환인제약주식회사 | 서울장학재단 | 진양제약 | 일주학술문화재단 | 코스맥스 |
| 세진에프알에스 | 한국프리밸 | 방일영문화재단 | DB김준기문화재단 | 대우인터내셔널 |
| 농심 | 무한투자 | 크로비상사주식회사 | 단암장학재단 | STX |

SNU Honor Club — 1억 원 이상 출연

| | | | | | | | |
|----------------------------------|-----------------------------------|------------------------------------|-----------------------------------|----------------------|-------------------------------|---------------------------------|--------------|
| 강대희 (의학과 81일) | 김영석 (화학과 64일) | 김봉윤 (외교학과 60일) | 전병룡 (정책학과 동문의 부) | 건일제약 | 비아오엔티파이 | 양지농장 | 한국거래소 |
| 감신자 (간호학과 59일) | 김하자 (서양화과 故 하동철 교수의 부인) | 엄병섭 (화학과 66일) | 전상홍 (외교학과 78일) | 건화엔지니어링 | 방송문화진흥회 | 에리트베이직 | 한국금융투자협회 |
| 고광우 (정신학과 53일) | 김학봉 (한영요법 회장) | 연경은 (공예과 84일) | 전용필 (경영대학 정인근의 모) | 경기도인재개발원 | 법인 39회 동문 일동 | 엑스체제 | 한국무역협회 |
| 고운숙 (약학과 60일) | 김현희 (의과대학 60일) | 오정민 (경찰학과 67일) · 오선희 | 전익찬 (지구환경과학부 故 전재규의 부) | 경남기업 | 법인 84회번 동기회 | 연강재단 | 한국문화진흥 |
| 고윤석 (물리학과 47일) | 김현희 (간호학과 59일) | 오세경 (약학과 61일) | 전해종 (동양사학과 47졸) | 경암교육문화재단 | 법인 85학번 동기회 | 영원임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고지광 (기구과학과 동문의 부) | 김형주 (전자계산기공학과 78일) | 오수진 (기계공학과 63일) | 전희선 (연세주부이민기후과 원장) | 경영B2홀케어미디 | 법인최고지도자과정 8기 일동 | 오펠 | 한국복합물류 |
| 고정택 (외교학과 62일) | 김혜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오승호 (의학과 56일) | 정달원 (고고학술사학과 故 청원의 부) | 경제학과·무역학과 82집 동기회 | 법인최고지도자과정 10기 일동 | 오두기 | 한국산업은행 |
| 고주 노홍희 (환경대학원 초대원장) | 김희백 (생물교육과 75일) | 오용호 · 오양호 (행정학과 69집 · 법과대학 80일) | 정병우 · 이춘희 | 법무법인 광장 | 오두기 태호재단 | 한국세포주연구재단 | |
| 故 홍석덕 변호사 유기족 (천자경 · 광성현 · 광성희) | 나용언 | 오윤덕 (행정학과 61일) | (독어독문학과 故 정현수(03집)의 가족) | 고려여연 | 법무법인 바른 | 오리엔트이엔지 | 한국말산업 |
| 곽상현 (前 글로벌리더십센터장) | 나정환 (화학교육과 54일) | 오윤교 (서양화과 76일) | 정영식 (인류학과 66일) | 골프존 | 법무법인 베스트 | 오리온전기 | 한국임웨이 |
| 곽수근 (경총학과 73일) | 남정현 (건축학과 57일) | 유선희 (공업화학과 68일) | 정영현 (공업화학과 정순옥의 부) | 공영관련 | 법무법인 울촌 | 오션엘에스티 | 한국외국인학교 |
| 구현진 (환경사학과 87일) | 노명호 (토목공학과 91일) | 육성준 기족 일동 | 정인식 (경제학과 58일) | 과천시에향장학회 | 법무법인 케이씨엘 | 오스팅밀플란트 | 한국자산관리공사 |
| 故 김연록 교수 유기족 | 노태원 (물리학과 78일) | 우진현 (상학과 61일) | 정재민 (약학과 77일) |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23기 일동 | 법무법인 태평양 | 우리재단 | 한국전파기자국 |
| 구현배 (자원공학과 85일) | 류무종 (중어중문학과 53일) | 우철규 (생어영문학과 33일) | 정재선 (소비자이동학과 93집) | 법무법인 화우 |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24기 일동 | 우리한국금융 | 한국증권금융 |
| 구민환 (국어교육과 50일) | 마국철 (공업교육과 68집) | 유동원 (공업화학과 94집) · 소영순 | 정재준 (前 경보전기 부회장) | 관사장학회 | 법무법인 펠렛 | 유기경 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 한국지식재산청장학재단 |
| 구의일 (경제학과 61일) | 미드리슬라임단 (당진 이순자) | 유숙숙 (고고미술사학과 故 김원용 교수의 부인) | 정종곤 | 관춘길현상연구기금 | 법신장학문회재단 | 유나베라 | 한국타이어 |
| 구자서 | 마인경 (지리학과 56집) | 유효선 (의류학과 70일) | 정종수 | 광동제약 | 유신 | 한국투자신탁운용 | |
| 권민 (식품영양학과 00일) | 문학진 (화학과 49집) | 윤계설 (상학과 64일) | 정보수 (학자 60일) | 교보문고 | 부경양단협조합 | 유티씨이비스터먼트 | 한국투자증권 |
| 권세일 (법학부 동문의 부) | 문효숙 (조소과 92집) | 윤경우 (경학과 58일) · 최덕자 | 정해운 · 김옥진 (생물교육과 58일 · 생물교육과 58일) | 구원장학재단 | 비씨카드 | 유한재단 | 한산이씨양고공파서공종중 |
| 권숙일 (물리천문학부 54일) | 문화성 · 박종식 (전기공학과 53집 · 가정교육과 54일) | 윤석급 (웅진그룹 회장) | 조경일 (약학대학 64일) | 국가정책과 (ACAD) 총동창회 일동 | 시민법인 은을 | 유한킴벌리 | 한샘출판 |
| 권현대 (외학과 55일) | 박대근 (보건대학원 63집) | 윤승호 (수학과 59일) | 조동성 (경학과 67집) | 국방과학연구소 | 시립대학 국어교육과 동문회 | 윤성관상석문화재단 | 한수통상 |
| 권영덕 (전기공학과 54집) | 박맹호 (불어불문학과 52집) | 윤세리 (경제학과 57일) · 강애삼 | 조병언 | 국영지엔탈 G&M |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동문회 | 음악대학 피아노발전기금위원회 | 한월 |
| 권복현 (전기공학과 62집) | 박민식 · 박금우 (수의과대학 65집 · 체육교육과 63일) | 윤여순 | 조병영 (법학과 46일) | 국제체육재단 | 시조산업 | 이수주 장학회 | 한재장학재단 |
| 금진태 (화학과 62집) | 박병주 (엑스레이트 회장) | 윤용석 (에너지원공학과 63일) | 조종식 (EMBA 14집) | 길호아시아니문화재단 | 삼성꿈장학재단 | 이오트리니스 | 해나천년물신약 |
| 김간식 (법학과 73일) | 박봉균 (수의학과 76일) | 윤총석 · 최재영 | 조석준 (행정학 57집) | 김 · 장 법률사무소 | 삼성에버랜드 | 이지바이오 | 해성문화재단 |
| 김경파 (교육과 86일) | 박숙희 (지리학과 60일) | 이간우 (기계공학과 74일) | 조정식 (수의학과 80일) | 길영사 | 상승장학회 | 이루고교육 | 해성장학회 |
| 김경한 (법학과 62일) | 박승구 (경제학과 87집) | 이경식 (불어불문학과 55집) | 조죽환 (부산시통 대표) | 길정문일로에 | 상양사 | 이비원 한일교류재단 | 해태 |
| 김경한 (외교학과 62일) | 박영숙 (간호학과 65일) | 이광희 (지리학과 59일) | 조종수 (국내대학교 교수) | 끼사이마 | 상양제네스 | 인선문화재단 | 현대건설 |
| 김광일 (경영학과 84일) | 박영준 (전기공학과 71일) | 이교일 · 박경진 (기계공학과 60일 · 불어불문학과 65일) | 조한영 (상학과 43집) | 나산실업 | 상우종합건축사무소 | 인종기념회 | 현대전자산업 |
| 김구 (정신학과 58일) | 박용현 (교육행정학과 53집) | 이구철 (물리학과 55일) | 조종준 (미학과 65집) | 남광토건 | 상임문화재단 | 인총 | 현대차전자증권 |
| 김금순 (간호학과 68일) | 박용호 (수의학과 74집) | 이금기 (약학과 55집) | 조종현 (FNP·식품영양산업 CEO과정 7기) | 길호아시아니문화재단 | 삼성꿈장학재단 | 이지바이오 | 현대카드 |
| 김기봉 · 김경은 (기계공학과 63집 · 화학과 65집) | 朴재우 (기전관리과 82집) · 하상예 · 박임숙 · 박순영 | 이기원 (식품공학과 93집) | 차상군 교수 외 제자 12명 | 김영비비안 | 삼일회계법인 | 인领土스 | 현대캐피탈 |
| 김기태 (외학과 58집) | · 박노용 | 이기종 (기전관리과 61집) | 차영선 | 네온코리아 | 상진순약공업 | 인비티크 | 현동장학회 |
| 김난도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 박종근 (전기공학과 69집) | 이내건 · 이종이 (경제학과 55 · 약학과 63일) | 체성기 (원자핵공학과 59집) | 노키아아일랜드 | 상진박막진공 | 일동제약 | 현우그린 |
| 김대욱 (조선공학과 76집) | 박종수 (수의학과 58집) | 이동수 | 체제한 (전기공학부 48집 故 채호석의 자) |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학과 동창회 | 상호개발 | 일동후디스 | 홀플러스파인재단 |
| 김길길 (화학과 57인) | 박종오 (영어영문학과 55집) | 이민태 (의과대학 52집) | 최제한 (전기 · 물리학과 65집)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상임문화재단 | 호성그룹 | 유맥스 |
| 김동준 이유미 (故 최용희의 가족) | 박종호 · 제작학과 67집) | 이명숙 (치과대학 62집) | 최경준 (법과대학 동문) | 천문우 (의학과 61집) | 일진기기기술문화재단 | 제이미술대총동창회 | 총한재단 |
| 김동준 (화학과 62집) · 외교정주 교수 가족 | 박준기 (73집) | 이명현 (경기대학과 60일) | 최규필 (제약학과 70집) | 상지상사 | 제이미술대총동창회 | 제이미술서울총동동창회 | AMP 637 |
| 김동철 (전자공학과 66일) | 박진환 (농경제학과 48집) | 이명한 (수학과 66집) | 최덕순 (간호학과 59집) | 상진개발 | 상진제작 | AMP 641 | 일동 |
| 김민국 (약학과 47일) | 박태교 (화학부 79집) | 이병준 (경제학과 65집) | 최민수 (기계공학과 76집) | 대동공업 | 생활과학대 2012 · 2013 홈커밍 동문희망장학금 | 전국경제인연합회 | AMP 657 |
| 김명기 (기아트센터 학백) | 박태우 (건축학과 64집) | 이석 (기계공학과 80일) | 최병선 (경제학부 교수) | 대림대학 | 생활과학대 2014 · 2015 홈커밍 동문희망장학금 | 전국은행연합회 | AMP 667 |
| 김병종 (화학과 74집) | 박태진 (독어독문학과 80집) | 이성규 (사학과 65집) | 최병으 (AFB · 패션산업 최고경영자 과정3기) | 대양 E&C | 생활과학대 2016 · 2017 홈커밍 동문희망장학금 | 정공산업 | AMP 671 |
| 김상현 (서법학과 82집) | 박한재 (동양사학과 69집) | 이성령 (정치학과 82집) | 최범우 (AEB · 패션산업 최고경영자 과정3기) | 대영빌딩 | 생활과학대학 동동창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AMP 671 일동 |
| 김상현 (야영문화과 · 기계항공공학부 동문의 부) | 박하우 (간호학과 66일) | 이순현 (기전기기학과 60일) | 최애록 (간호학과 50집) | 서울대학교 ROTC 동문회 | 상진제작 | AMP 687 | 일동 |
| 김상현 (전자공학과 66일) | 박현기 (63집) | 이순현 (화학과 54집) | 최운철 (축산학과 73집)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십과정 | 정수구장학회 | AMP 691 | 일동 |
| 김선동 (화학공학과 59집) | 박현준 (농공학과 54집) | 이순행 (가장관리학과 70집) | 최재열 (조소과 최민주의 부)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십과정 | 정원제재단 | 제47기 최고지도자인문학과정 | AMP 701 |
| 김선희 (전자기기 60일) | 법대 48회 졸업생 | 이신도 (물리학과 76집) | 최정록 (화학과 49집)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이니스 | AMP 711 | 일동 |
| 김선훈 (야영문화과 63집) | 법대49회 재학원의 모) | 이영경 (간호학과 46집) | 최정운 (정치외교학부 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저스티스 | AMP 721 | 일동 |
| 김성애 (한국콜마(주) 연구위원) | 변성선 (영어교육과 60일) | 이용환 (농업교육과 63집) | 최창원 (심리학과 83집) |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 조비앙상장학재단 | AMP 737 | 일동 |
| 김성일 (일학과 76일) | 김성이 (경기교류과 60일) | 이용호 (전기공학과 73집) | 최희경 (외경과 83집) | 대한사료 | 증근당 | AMP 747 | 일동 |
| 김성이 (경기교류과 92집) | 서문자 (기호학과 63집) | 이용선 (미술대학 명예교수) | 최현경 (외경과 83집) | 서울대교 국제대학원 동문회 | 증로구장학회 | AMP 751 | 일동 |
| 김수호 · 박경희 (금속공학과 70일 · 간호학과 71일) | 서원경 (미술대학 94집) | 서정운 (미래 표표) | 추현출 (전기공학과 55집) | 대우기기 | 증로구장학회 | 제48기 최고지도자인문학과정 | AMP 761 |
| 김순준 (외학과 60일) | 서진우 (미래 표표) | 이원영 (기전기기학과 65집) | 서원자 (전기공학과 55집)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이니스 | AMP 771 | 일동 |
| 김순준 (야영문화과 64집) | 서진우 (한국문화과 91집) | 이종우 (영어교육과 46집) | 최정운 (정치외교학부 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저스티스 | AMP 772 | 일동 |
| 김영근 (IEFP · 미래지도자인문학과정 2기) | 설학인 (설교과 53집) | 이종현 (한국교육과 60일) | 최창원 (심리학과 83집) |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 조비앙상장학재단 | AMP 773 | 일동 |
| 김연탁 (경제학과 故 김태성 교수의 부) | 성난인 (제26대 총장) | 이운숙 (간호학과 59집) | 최희원 (외경과 62집) | 대한사료 | 증근당 | AMP 747 | 일동 |
| 김영호 (화학공학과 71집) | 손경식 (법학과 57집) | 이원진 · 서서 (전기공학과 86집 · 경영학과 66집) | 한기준 (의학과 62집) | 서울대교 국제대학원 동문회 | 증로구장학회 | E1 | |
| 김영경 (기계공학과 52집 · 김현순 | 손원준 · 송은빈 (경영학과 96일 · 실리학과 99집) | 이원주 (제24대 총장) | 한동현 (경영학과 85집) | 대우기기 | 증로구장학회 | Eyagi(이야기) CAFÉ | |
| 김영구 (사회학과 71집) | 손주은 (서양사학과 59집) | 이재승 (원자핵공학과 59집) | 한상복 (사회학과 56집)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증로구장학회 | GM | |
| 김영석 (물류istics 회장) | 손창조 (사회학과 71집) | 이정신 | 한영우 (인문대학 명예교수) | 서아임합학술장학재단 | 증로구장학회 | Goldman Sachs | |
| 김영수 (법학과 67일) | 승우영 (GLP · 글로벌리더십과정 24기) | 이정설 (종교학과 04집) | 한옥희 (화학과 79집) | 서진에프알에스 | 증로구장학회 | KEILCO(KEPCO ILJAN CORPORATION) | |
| 김영숙 (기악과 48일) | 승명철 (전기공학과 62집) | 이종덕 (물리학과 62집) | 한정희 · 김재해 (행정학과 61일 · 법학과 61일) | 셀리드 | 전기장학회 | KRX국민복제재단 | |
| 김영심 (화학교과 故 오현우 교수의 부인) | 송미순 (간호학과 | | | | | | |

| 2019.9.1. ~ | 약정 | 출연 | 김태형 (환경대학원 교수) | 10,000,000 | 김용권 (공과대학 교수) | 4,500,000 | 박상인 (행정대학원 교수) | 1,242,000 |
|---------------------------|---------------|---|--------------------|------------|---------------------------|-----------|----------------------------|-----------|
| 2019.11.30. | 단위: 원 | 단위: 원 | 노정희 (자연과학대학 교수) | 10,000,000 | 한국지도자유성장학재단 (박기웅 이사장) | 4,403,000 | 고길곤 (행정대학원 교수) | 1,200,000 |
| 플라톤아카데미 (최창원 이사장) | 50,000,000 | 1,050,000,000 | 뉴트코리아 (이학 대표이사) | 10,000,000 | 한국방정환재단 (이상경 이사장) | 4,400,000 | 이기영 (보건대학원장) | 1,200,000 |
| 삼익악기·스코 (김종선 회장) | 1,000,000,000 | | 동화산업장학재단 (문대원 이사장) | 10,000,000 | 조제열 (수의과대학장) | 4,318,395 | 이영식 (수의과대학 교수) | |
|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 | | 850,000,000 | 민계식 (조선항공학과 61일) | 10,000,000 | 구본관 (사범대학 교수) | 4,202,636 | 한경석 (의과대학 협정실장) | 1,200,000 |
| 김석수 (자원공학과 73일) | 698,000,000 | 698,000,000 | 박상덕 (원자핵공학과 71일) | 10,000,000 | 김대규 (지구환경과학부 학생의 부) | 4,000,000 |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 (강경희 이사장) | 1,190,000 |
| 미래와도전 (이병철 대표이사) | 300,000,000 | | 박인권 (환경대학원 교수) | 10,000,000 | 로버스트자산운용 (박정윤 대표이사) | 4,000,000 | 전진수 (약학대학 행정실장) | 1,090,000 |
| 상지상사 (경제학과 회장) | 300,000,000 | 300,000,000 | 백제홍 (사법학과 84일) | 10,000,000 | 박민수 (동양사회과 98일) | 4,000,000 | LG화학 (신경철 부회장) | 1,000,000 |
| 내건(경제학과 55일) 이충자(약학과 63일) | 300,000,000 | | 변양호 (무역학과 73일) | 10,000,000 | 박소정 (경영대학 교수) | 4,000,000 | 강원모 (환경계획학과 06일) | 1,000,000 |
| 로이드선금협회 이시아 (이진태 대표) | | 294,004,062 | 상암주유소 (총설련 대표) | 10,000,000 | 정운오 (경영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4,000,000 | 고문자 (중경미술과 62일) | 1,000,000 |
| 용운장학재단 (조혁고 이사장) | 259,000,000 | 259,000,000 | 서울 첼버스 (친환경 대표번호사) | 10,000,000 | 행정대학원 제30기 동기회 | 4,000,000 | 구본설 (자연과학대학 교수) | 1,000,000 |
| 고목자 (故乡 誉명수 명예교수 부인) | 200,000,000 | | 세메스 (김용식 대표이사) | 10,000,000 | 박양수 (영기고교과 55일) | 3,600,000 | 김경민 (수의학과 동문) | 1,000,000 |
|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 | | 200,000,000 | 송영근 (환경대학원 교수) | 10,000,000 | 일주학술문화재단 (허승조 이사장) | 3,422,210 | 김기원 (AIP·최고신사업전략과정 제38기) | 1,000,000 |
| 구원장학재단 (이우인 이사장) | 175,200,000 | 175,200,000 | 식품영양학과 75학번 일동 | 10,000,000 | 최스미 (간호대학 교수) | 3,400,000 | 김병기 (공과대학 교수) | 1,000,000 |
| 김재창 김세영 김세정 | 100,000,000 | 10,000,000 <th>신송식품 (조지현 대표이사)</th> <th>10,000,000</th> <th>토미 디지털 바이올로지 (토미나-캔자로 대표)</th> <th>3,242,940</th> <td>김상우 (자연과학대학 교수)</td> <td>1,000,000</td> | 신송식품 (조지현 대표이사) | 10,000,000 | 토미 디지털 바이올로지 (토미나-캔자로 대표) | 3,242,940 | 김상우 (자연과학대학 교수) | 1,000,000 |
| 생활과학대학장학회 | 100,000,000 | 100,000,000 | 인병직 (인문대학 교수) | 10,000,000 | JC비소밍안과내과 (최경배 대표원장) | 3,000,000 | 나기용 (원자핵공학과 78집) | 1,000,000 |
| 엘케이비엔파트너스 (이광범 대표번호사) | 100,000,000 | 50,000,000 | 원의아이피에스 (이현덕 대표이사) | 10,000,000 | 강용현 (법학과 71일) | 3,000,000 | 나도선 (약학과 67집) | 1,000,000 |
| 영원무역 (성기학 대표이사) | 100,000,000 | 100,000,000 | 의류학과 75학번 일동 | 10,000,000 | 김선진 (사범대학 교수) | 3,000,000 | 나호상 (서울대학교별전기금 행정실장) | 1,000,000 |
|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 | | 100,000,000 | 이덕아이엔씨 (김종운 대표이사) | 10,000,000 | 김종원 (공과대학 교수) | 3,000,000 | 노은아 (국악과 96집) | 1,000,000 |
| 정지석 (약학과 60집) | 100,000,000 | 100,000,000 | 이오테크닉스 (성규동 대표이사) | 10,000,000 | 네오위즈 (문지수 대표) | 3,000,000 | 니자 (김경용 대표) | 1,000,000 |
| 최기영 (전기공학과 74일) | 80,000,000 | 16,000,000 | 영어교육과 85학번 동기회 | 10,000,000 | 넥스트엔바이오 (이현숙 대표) | 3,000,000 | 도기준 (치의학과 04집) | 1,000,000 |
| 신라문화장학재단 (박준형 이사장) | 71,960,000 | 71,960,000 | 원의아이피에스 (이현덕 대표이사) | 10,000,000 | 대신이엔디 (문길우 대표이사) | 3,000,000 | 박군철 (공과대학 명예교수) | 1,000,000 |
| 천만장학회 (윤경기 이사장) | 63,456,000 | 63,456,000 | 의류학과 75학번 일동 | 10,000,000 | 신주원 (이관우 대표이사) | 3,000,000 | 박기철 (원자핵공학과 72집) | 1,000,000 |
|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이사) | | 60,000,000 | 정수종 (환경대학원 교수) | 10,000,000 | 아임희제 (손희재 대표이사) | 3,000,000 | 박성훈 (기계공학과 58집) | 1,000,000 |
| 더블유에이피마이어이션 (김월임 대표) | 59,094,000 | 59,094,000 | 정수종 (환경대학원 교수) | 10,000,000 | 진영원 (약학대학 교수) | 3,000,000 | 박언식 (공업화학과 89집) | 1,000,000 |
| 콜마비엔에이치 (정화영 대표이사) | 54,000,000 | | 차상석 | 10,000,000 | 허의숙 (간호대학 교수) | 3,000,000 | 박은준 (간호학과 89집) | 1,000,000 |
| 김호 (보건대학원 교수) | 52,000,000 | | 최규진 (제약학과 90집) | 10,000,000 | 전병룡 (정책과 동문의 부) | 3,000,000 | 박민경 (간호학과 03집) | 1,000,000 |
| 천재교육 (최윤준 대표이사) | | 51,553,000 | 최종건 (치과대학 74집) | 10,000,000 | 제주항공 (이선우 대표) | 3,000,000 | 신동철 (기축학과 97집) | 1,000,000 |
| 홍종호 (환경대학원장) | 50,000,000 | 50,300,000 | 티에이씨피 (김태형 대표이사) | 10,000,000 | 조병희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 3,000,000 | 씨더블유 (권택진 대표이사) | 1,000,000 |
| 인웅석 (법학과 80집) | 50,000,000 | 5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10,000,000 | 진영원 (약학대학 교수) | 3,000,000 | 아리네트웍스 (성동석 대표이사) | 1,000,000 |
| 이광희 (지리학과 59집) | | 5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6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998,000 | 인국신 (경제학과 65집) | 1,000,000 |
| 이례본 (박영숙 대표이사) | 50,000,000 | 5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KT그룹희망나눔재단 (전인성 이사장) | 2,998,000 | 오성장학회 (최무영 이사장) | 1,000,000 |
| 한국타이어앤티브로징 (조현숙 대표이사) | | 5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998,000 | 우혜경 (보건대학원 15집) | 1,000,000 |
| 한일홀딩스 (허기호 대표이사) | 50,000,000 | 5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백운장학재단 (정병훈 이사장) | 2,500,000 | 유근배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 1,000,000 |
| 현대엔지니어링 (김위철 대표이사) | 50,000,000 | 5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500,000 | 이상석 (SGS-도시환경경과전문가과정 제34기) | 1,000,000 |
| 홍선근 (철학과 78집) | 50,000,000 | 5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500,000 | 이세열 (원자핵공학과 78집) | 1,000,000 |
| 증근당고촌재단 (이장한 회장) | 45,771,000 | 45,771,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500,000 | 이진호 (인문대학 교수) | 1,000,000 |
| 우덕재단 (허정섭 이사장) | 38,348,000 | 38,348,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500,000 | 이해의 (경제학과 64집) | 1,000,000 |
| 세진에프알에스(리쿠루치나 서울대원) | | 38,2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500,000 | 정종훈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 1,000,000 |
| DB인증기기문화재단 (이근영 이사장) | 35,500,000 | 25,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400,000 | 정택진 (경제학과 79집) | 1,000,000 |
| 에스피씨삼립 (이영구 대표이사) | | 34,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400,000 | 정해진 (환경경과 01집) | 1,000,000 |
| 재홍서울대학교총동문회 | 33,299,200 | 33,299,2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258,068 | 제이피트레이딩 (정운철 대표이사) | 1,000,000 |
| 삼성복지재단 (이수빈 이사장) | 32,100,000 | 32,1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258,068 | 최경진 (지리학과 73집) | 1,000,000 |
| ABKI 문현지정보·최고위과정 제10기 | 30,000,000 | 3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최석순 (지리학과 82집) | 1,000,000 |
| AMP 최고경영자과정 충동창학회 | 30,000,000 | 3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최우길 (자연과학대학 교수) | 1,000,000 |
| YBM (민선식 회장) | | 3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최윤선 (인문대학 교수) | 1,000,000 |
| 고광호 (약학대학 명예교수) | 30,000,000 | 3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이진호 (인문대학 교수) | 1,000,000 |
| 세아해양학술재단 (이순형 이사장) | 30,000,000 | 3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이해의 (경제학과 64집) | 1,000,000 |
| 심영근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 | 3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정종훈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 1,000,000 |
| 학봉장학회 (이연현 이사장) | 30,000,000 | 3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정택진 (경제학과 79집) | 1,000,000 |
| 한경구 (자유전공학부 교수) | | 3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정해진 (환경경과 01집) | 1,000,000 |
| 한스코리아 (한광렬 대표이사) | 30,000,000 | 3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제이피트레이딩 (정운철 대표이사) | 1,000,000 |
| 홍여신 (김호대학 명예교수) | | 3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최경진 (지리학과 69집) | 1,000,000 |
| 심성광장학재단 (노성태 이사장) | 27,118,988 | 27,118,988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김순근 (간호대학 60집) | 100,000 |
| 레모넥스 (원철우 민달희 대표이사) | 26,000,000 | 26,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뉴욕지부 동문 | 3,000 |
| 이종열 (행정대학원 81집) | 25,000,000 | 5,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김경자 (간호대학 65집) | 2,000 |
| 한화투자증권 (권희백 대표이사) | 24,000,000 | 24,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강교숙 (간호대학 73집) | 1,000 |
| 리앤원 (원재연 이사장) | 21,300,000 | 21,3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건숙 벤스타인 (간호대학 66집) | 1,000 |
| 제이월드인터넷내셔널 (김정원 대표이사) | 21,000,000 | 21,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9,500,000 |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 | 2,000,000 | 고정숙 (간호대학 69집) | 1,000 |
| 대한불교계종 안국선원 (수불스님 선원장) | | 20,000,000 | 한미메드 (이진석 대표 | | | | | |

*금액 순

서울대학교 기부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서울대학교에는 진리와 지성의 역사가 녹아있습니다.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의 빛나는 역사를 되짚고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펼쳐지는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열정과 기부자 여러분의 힘으로 눈부시게 달라지고 있는 캠퍼스를 만나보세요.

- 관람 코스 안내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도서관
중앙도서관 관정관



유네스코 선정 세계기록문화유산의 보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통과 문화의 요람
서울대학교 박물관



거대한 조각 작품을 연상시키는 복합문화공간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

* 본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주관으로
1억 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비용은 무료입니다.

* 교내 연구시설 등 다양한 관람코스가 추가될 수 있으며,
별도 준비된 차량으로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예우팀

02-871-1622, 1633 | snuf@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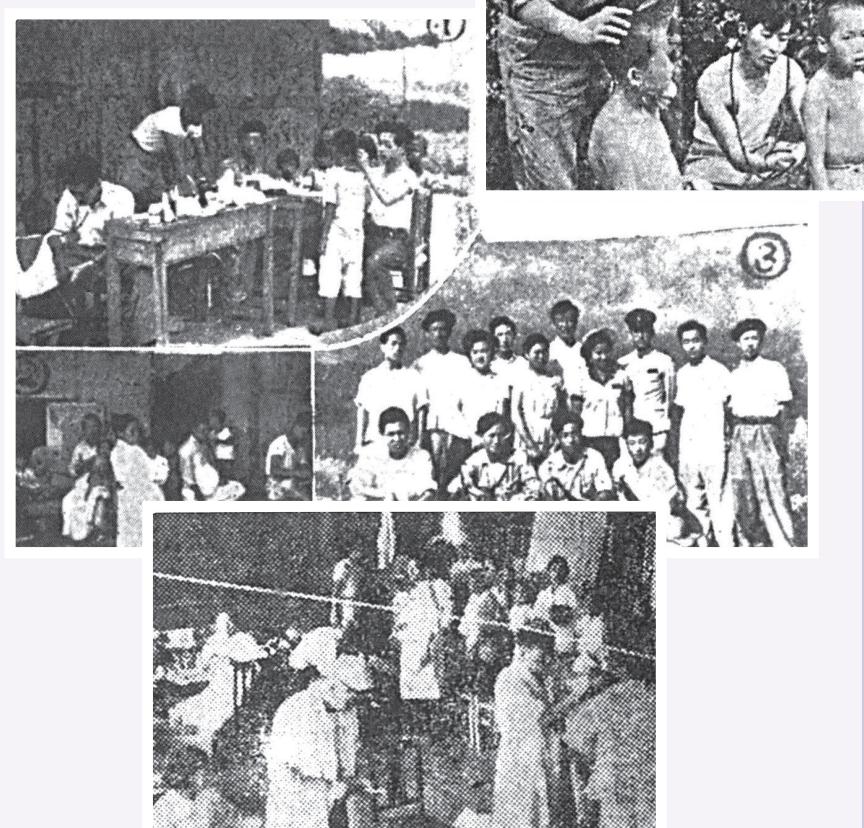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시면 SNU HONOR CLUB 예우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를 하다 학문을 기반으로 사회에

대학의 세 기능을 흔히 교육, 연구, 봉사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학생들의 '봉사'는 일제강점기 농촌계몽활동까지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농촌봉사활동 '농활'이다. 1990년대 전반까지 매년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활발히 진행되던 농활은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그 규모나 의미가 크게 축소되었고 2000년대 이후 학생운동과 연결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봉사활동들이나 학교 차원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다.

— 서울대학교 70년사 제4부 대학문화 중



1955년 9월 5일 의과대학 무의총 진료 활동 모습. 1970년대 이전에는 여름 방학 이전의 농활, 또는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진이 적지 않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T. 02-880-9071
F. 02-876-5480
www.snu.ac.kr